

文學碩士 學位論文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石 秉 哲

2006年 12月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石 秉 哲

石秉哲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12月

<目次>

I. 머리말	1
1. 연구사	2
2.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5
II. 統一新羅 火葬과 火葬墓 사례	7
1. 기록으로 본 統一新羅의 火葬	7
1) 文獻을 통해 본 火葬	7
2) 金石文을 통해 본 火葬	9
2.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사례	15
III.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의 특징	40
1. 火葬墓의 分布와 立地	40
2. 火葬墓 構造 분류와 構成	44
1) 火葬墓 構造 분류	44
2) 火葬墓 構造에 따른 構成	47
IV.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의 諸문제	54
1. 火葬墓의 조성배경	54
2. 火葬墓의 피장자에 대한 문제	57
V. 맺음말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8

〈그림목차〉

그림 1. 대왕암(上)과 문무왕릉비편(下).....	10
그림 2.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11
그림 3. 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	11
그림 4. 斷俗寺神行禪師碑文	12
그림 5.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13
그림 6. 충효동 6호 석실분	16
그림 7. 충효동 3호분 봉토 출토 廣口扁球壺	16
그림 8. 충효동 고분군 수습된 藏骨器	17
그림 9. 남산 板石四壁 출토 藏骨器	17
그림 10. 동천동 출토 청동사리함	19
그림 11. 조양동 출토 석함	19
그림 12. 천마총 봉토 내 토기 출토 상황	20
그림 13. 황남대총 북분 봉토 내 출토 유개합	21
그림 14. 안압지 藏骨器 출토상황	22
그림 15. 안압지 출토 骨壺	22
그림 16. 傳민애왕릉 ‘元和十年’銘 藏骨器 출토 상황	23
그림 17. 석장동 학생회관 부지 藏骨器 출토 상황	24
그림 18. 동천동 火葬墓 노출상태	25
그림 19. 화곡리 출토 藏骨器	26
그림 20. 석장동 5호 火葬墓	27
그림 21. 황성동 23호 토광	27
그림 22. 석장동 51호 火葬墓	28
그림 23. 석장동 61호 火葬墓	29
그림 24. 석장동 62호 火葬墓	30
그림 25. 석장동 68호 火葬墓	31
그림 26. 석장동 73호 火葬墓	32
그림 27. 갑산리 5호 火葬墓	33

그림 28. 황성동 석실분 호석 주변 매납유물2	34
그림 29. 火葬墓 I A 유형	48
그림 30. 火葬墓 II A 유형	49
그림 31. 火葬墓 II B 유형	50
그림 32. 火葬墓 II C 유형	51

<표 목차>

표 1.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火葬 사례	8
표 2. 평지 火葬墓의 예	41
표 3. 산지 火葬墓의 예	42
표 4.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 火葬墓 구조 분류	52
표 5. 火葬墓 유형별 시기	53
표 6. 統一新羅時代 佛教	55

<지도>

지도 1.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 火葬墓 分布圖	39
---------------------------------	----

I. 머리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전후시기에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묘제 역시 기원후 550년을 기점으로 적석목곽묘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변천하게 된다.¹⁾ 여기에 火葬이라는 특수한 장법으로 遺骨을 藏骨器²⁾에 담아 묻는 묘제가 나타난다.

신라에서 火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三國史記』 문무왕 조에서 火葬의 기록을 처음 발견할 수 있다. 火葬은 기존의 장법과 달리 佛教受容 이후 발생하여 불교의 성행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統一新羅時代의 火葬은 불교적 생사관에 입각한 장법으로서 葬禮를 간소화시키는 등 전통적인 厚葬의 매장관념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火葬은 장례의식뿐만 아니라 묘제와 장구 등 독특한 장례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火葬墓는 삼국시대, 統一新羅時代의 자료가 그 시대적 특징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다. 삼국시대의 경우 고구려에서는 火葬墓나 藏骨器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백제와 신라보다 일찍 불교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서는 火葬과 관련된 문헌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고구려 유적이 북한과 중국에 분포하고 있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고구려와 달리 백제와 신라는 藏骨器를 비롯하여 火葬墓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백제와 신라는 대부분 火葬墓에 토기를 藏骨器로 사용하였으며, 대개 일상생활용 토기와 기형의 차이는 없다.

統一新羅時代에는 삼국시대와 같이 藏骨器로 토기를 사용하였지만 외용기로써 새로이 석함이 제작되고, 藏骨器의 기형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용을 벗어나

1) 金昌鎬, 「考古學 資料로 본 新羅史의 時代區分」, 『仁荷史學』 10, 2003.

본고에서는 위의 논문에서 제시된 시대구분 안을 통해 묘제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A.D 350년~550년까지 적석목곽묘, 550년~800년까지 횡혈식석실분, 800년~935년까지 무고분

2) 일명 骨壺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 용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火葬 후에 遺骨을 藏骨하는 경우 뼈를 담은 것을 骨壺라고 칭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火葬墓와 관련되어 조사가 이뤄지면서 藏骨器로 壺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骨壺라는 용어 보다는 藏骨器 또는 骨藏器라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藏骨器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전용 藏骨器가 고안되며 기종도 다양해진다. 또한 표면은 각종 인화문으로 장식하여 고분 출토, 안압지 출토 토기와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의 토기로서 統一新羅 토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연구사

火葬墓 관련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초의 연구는 齋藤忠³⁾에 의한 것으로 신라시대 최초의 火葬을 『三國史記』에 있는 文武王의 火葬(681년)에 두고 統一新羅時代에 火葬과 藏骨器가 성행했음을 강조하면서 藏骨器의 기형, 문양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有光教⁴⁾은 신라시대 藏骨器의 발생을 文武王 火葬(681년)이후에 두었다. 또 경주 충효동석실분⁵⁾(1호~10호)의 일부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형과 문양들이 齋藤忠이 연구한 藏骨器와 유사한 것을 근거로 충효동석실분을 統一新羅時代에 묘제로 편년하였다.

藏骨器의 초기 연구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慶州地域의 火葬墓와 藏骨器에 대한 발굴조사는 결여된 채 수습자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火葬墓의 본격적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姜仁求⁶⁾는 이전의 신라시대 藏骨器 연구와는 달리 부여일대의 火葬墓를 학술적으로 발굴조사하였다. 이에 백제말기의 불교식 火葬墓의 구조, 藏骨器의 배치, 기형, 부장품의 실체를 밝히게 되었고, 藏骨器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韓炳三⁷⁾은 안압지에서 임해전 건립(674년)이전의 토층에서 開元通寶(621년

3) 齋藤忠, 「新羅火葬骨壺考」, 『考古學論叢』, 1936.

-----, 『新羅文化論考』, 1973, pp.231~250.

4) 有光教一,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37, pp.44~53.

5) 본래 보고서에서는 충효리석실분으로 명명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현재의 지명에 따라서 충효동석실분으로 부르고자 한다.

6) 姜仁求, 「百濟의 火葬墓」, 『考古美術』 115, 韓國美術史學會, 1972.

「百濟의 火葬墳墓」, 『百濟古墳研究』, 一志社, 1977.

鑄造)를 매납한 원저단경호가 발굴된 것에 주목하였다. 統一新羅時代 토기를 고분출토 토기, 藏骨器, 안압지 출토 토기로 분류하였다. 신라시대의 火葬骨葬用土器의 발생을 古新羅 末期에 두고 藏骨器의 기형과 문양 등을 통하여 신라시대 藏骨器의 편년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金元龍⁸⁾은 충효동 석실분의 구릉과 남산 일대에서 확인되는 藏骨器들의 예를 통해서 왕에서 일반인에게까지 火葬이 유행한 것으로 이러한 火葬墓가 9세기에 사찰의 僧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藏骨器는 古新羅 말기에 발생하여 주로 統一新羅時代에 성행하였기 때문에 안압지 출토의 일상생활용 토기와 고분 출토 토기와의 상호연관성을 언급하였다.

藏骨器와 火葬墓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鄭吉子⁹⁾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련의 연구에서 토기의 편년과 慶州地域에서의 새로운 기년명 藏骨器 출토 등을 통해 신라시대의 火葬과 藏骨器의 발생을 재고하였다. 또한 藏骨器의 기형, 뚜껑꼭지의 형태, 맺음고리의 부착위치, 문양을 형식학적으로 고찰하여 종전보다 좀 더 세분화하여 총 5기로 된 편년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統一新羅 토기의 실상과 불교문화의 일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洪潛植¹⁰⁾은 신라 火葬墓의 가장 빠른 예는 7세기 초의 동천동 火葬墓로 보고 藏骨器의 유행은 곧 불교식 장법인 火葬이 성행하였고, 나아가 火葬墓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은 불교가 이미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불교식 장법의 지방 확산이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고분축조 행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여 고분의 종언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서 승배의 대상물이 고분에서 사찰로 교체되고, 불교식 장법인 火葬이 실시됨으로써 고분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삼국시대의 초기 火葬墓에 대해서 森本徹¹¹⁾는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의 고분

7) 韓炳三, 「統一新羅土器」, 『韓國의 美』 5, 中央日報社, 1981.

8) 金元龍, 「統一新羅土器初考」, 『考古美術』 162-163, 韓國美術史學會, 1984.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 國史編纂委員會, 1985.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제2판).

9) 鄭吉子, 「新羅時代의 火葬骨藏用土器 研究」, 崇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鄭吉子, 「新羅藏骨容器研究」, 『韓國考古學報』 8, 韓國考古學研究會, 1980.

10) 洪潛植,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pp.251~264, 2001.

11) 森本徹, 「韓國における初期火葬墓の研究」, 『韓國 考古와 歷史』 II, 경원문화사, 2000.

의 종말과 火葬墓의 도입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火葬墓의 피장자와 火葬의 기술, 황혈식석실분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불교와 연관성에 대해서 불교의 공인에서 火葬墓의 출현까지 시간차이가 있는 것은 보수적인 장제에서 火葬墓가 수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火葬墓를 불교장법으로 인정하고 불교의 전래와 火葬墓의 출현까지의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종교로서 불교의 전래로 인한 직접적인 장법을 수용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火葬과 관련되어 승탑에 대해서는 최근 蘇在龜¹²⁾의 연구가 있다. 그는 신라하대부터 고려시대의 승탑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승려들의 장법에 대해 비문과 승탑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신라하대 즉, 統一新羅時代 이후 승려들의 火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신을 육탈한 후 매장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火葬은 12세기 이후부터 승려들의 火葬이 본격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백제 火葬墓에 대해서 山本孝文¹³⁾의 최근 연구가 있다. 火葬墓 분류의 문제, 藏骨器의 용적 문제, 피장자에 대한 문제, 편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백제의 火葬墓의 양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피장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확인되는 火葬墓의 경우 피장자가 승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⁴⁾

김호상과 김재현¹⁵⁾은 2001년에 조사한 석장동 유적의 火葬墓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火葬墓를 파악하고, 인골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호상은 이를 통해 鄭吉子の 火葬墓 분류안을 수용하여 거기에 새로이 확인된 석장동 火葬墓를 추가하였으며, 김재현은 인골의 분석을 실시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연령을 확인하였다.

이상 火葬墓와 관련된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火葬은 묘제, 장구에 큰

12)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3) 山本孝文, 「百濟 火葬墓에 대한 考察」, 『韓國考古學報』 50輯, 2003.

14) 백제나 신라의 경우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 이를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5) 김호상·김재현,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骨分析」,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國邑에서 都城으로』 26輯, 2005, pp.291~317.

변화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연구는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체적으로 火葬墓와 藏骨器에 대한 연구는 백제의 火葬墓 연구는 강인구, 신라의 火葬墓와 藏骨器는 鄭吉子에 의해 구체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연구는 藏骨器를 통해서 火葬墓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火葬墓에 대해서 새로운 고고학적인 자료에 주목하여 조금씩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

火葬墓는 발굴 조사된 예가 적고, 대부분의 藏骨器들이 수습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 범위가 藏骨器에만 국한되어 火葬墓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火葬墓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어서 이전에 소개된 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火葬과 불교의 영향으로 火葬墓가 統一新羅의 묘제로 횡혈식석실분과 함께 성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불교 수용 이전에 火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¹⁷⁾, 三國時代 末期과 統一新羅時代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火葬이 실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藏骨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火葬墓의 구조나 피장자, 火葬處 등에 대해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統一新羅 火葬墓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본 火葬墓의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는 統一新羅時代로 일부 6세기말을 포함하는 7세기~9세기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공간적으로는 慶州地域을 중심으로 하였다.

16) 하지만 횡혈식석실분 경우는 묘제의 변화가 불교의 영향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金昌鎬, 앞의 논문, 2003, p.11.)

17) 불교수용 이전의 火葬墓의 예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中島의 경우는 고인돌에서 火葬한 어린 아이의 뼈가 흩어져 있으며, 진주 상촌리 14호 주거지에서 2기의 옹관에서 火葬된 인골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 중인 경주 덕천리 유적에서도 1호 석관묘가 확인되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아래의 4가지를 통해서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의 火葬墓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자료와 금석문을 통해서 당시의 火葬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火葬한 인물의 신분, 火葬에 있어서의 遺骨의 처리 방법, 火葬墓의 입지, 火葬의 이유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의 火葬墓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자료와 금석문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統一新羅時代의 火葬에 대한 정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인 火葬墓와 藏骨器가 발굴 조사되거나 수습된 사례를 통해서 그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 火葬墓 사례를 통해서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 火葬墓의 分布와 立地를 먼저 살펴보고, 火葬墓의 構造를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각 構造에서 보이는 구성은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넷째, 火葬墓의 조성배경과 피장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조성배경에서는 火葬과 관련하여 불교의 영향은 어떠한지, 불교 이외의 영향은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統一新羅時代에는 火葬이 王에서 서민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살펴 본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火葬墓의 피장자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II. 統一新羅 火葬과 火葬墓 사례

1. 기록으로 본 統一新羅의 火葬

이 장에서는 문헌과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統一新羅時代의 火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火葬한 인물의 신분, 火葬에 있어서의 遺骨의 처리 방법, 火葬墓의 입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火葬墓의 구조, 火葬의 사유 등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자료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금석문은 탑비문을 중심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文獻을 통해 본 火葬 <표 1>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사에서는 文武王~景哀王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왕 중에서 총 8명의 王에 대한 火葬기록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散骨한 왕은 孝成王(742), 宣德王(785), 眞聖王(897), 景明王(924)으로 총 4명이다. 효성왕과 선덕왕은 동해에 散骨하였는데, 이것은 문무왕의

경우도 葬地가 동해인 점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동해에 대한 그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火葬하여 藏骨한 왕은 孝恭王(921), 神德王(917)으로 승려인 자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文武왕(681)을 藏骨인지 散骨인지 알 수 없고 文武왕의 장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藏骨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元성왕(798)의 경우도 『三國史記』에 火葬한 기록은 보이나 이것이 散骨인지 藏骨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경주의 패룡을 元성왕릉 추정하고 있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藏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文武왕과 元성왕을 藏骨로 인정한다면 孝恭王, 神德王과 함께 藏骨한 왕은 4명이다.

표 1 .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火葬 사례

구분	『三國史記』	『三國遺事』 王曆
1)文武王 (661~681)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以 火燒葬.... <卷 第七>	陵在感恩寺 東海中.
2)孝成王 (737~742)	以遺命 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卷 第八>	法流寺火葬 骨散東海.
3)宣德王 (780~785)	死後 依佛制燒火 散骨東海... <卷 第九>	
4)元聖王 (785~798)	以遺命 舉柩燒於奉德寺南 <卷 第十>	陵濟鵠寺 今崇福寺
5)眞聖王 (887~897)	冬十二月乙巳 王薨於北宮 諡曰眞聖 葬于黃 山. <卷 第十一>	火葬 散骨于牟梁西岳 一作未黃山.
6)孝恭王 (897~912)	十六年 夏四月 王薨 諡曰孝恭 葬于師子寺北 <卷 第十二>	火葬師子寺北 骨藏于仇知堤東山脇.
7)神德王 (912~917)	秋七月 王薨 諡曰神德 葬于竹城 <卷 第十二>	火葬藏骨于箴峴南.
8)景明王 (917~924)	秋八月 王薨 諡曰景明 葬于黃福寺北 <卷 第十二>	火葬皇福寺 散骨于省等仍山西.
9) 慈藏, (590~658?)		... 遂殞身而卒, 荼毗安骨於石穴中 ... <三國遺事4卷> 5 義解-慈藏定律

문헌기록에서 확인한 火葬은 왕 8명 이외에 승려는 1명이었다. 특히 승려의

18) 감산사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보살입상의 조상기에서도 김지전(성)의 부모의 遺骨을 동해에 뿌렸다고 하는데 당시 동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나 정확히 알 수 없다.

19) 당시 火葬墓의 경우도 왕릉과 같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사례가 없다.

火葬이 1건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三國史記』 『三國遺事』 만을 통하여 살펴보고, 여기의 일부 상위 계층의 장법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장자와 관련하여 후술하고자 한다.

또 『三國史記』 『三國遺事』 에서 王들의 葬法을 살펴보면, 火葬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다. 이는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火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統一新羅時代의 자료로는 이를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의 경우는 『高麗史』 에서 火葬의 대한 기록과 함께 火葬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²⁰⁾

- 피난지에서 살해된 경우
- 後嗣가 없는 경우
- 전쟁터에서 病死한 경우
- 지방 부임지에서 사망한 경우
- 火葬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범에게 잡아먹힌 경우

이상의 火葬의 이유에서 문헌기록에 보이는 統一新羅時代 王들을 살펴보면, 우선 散骨한 新羅王들은 無子에 해당한다.²¹⁾ 이들 散骨한 4명의 王의 왕위계승자를 확인해 보니 모두 친자가 아니었다. 이는 후사가 없는 경우에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기 때문에 火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死因이 病人 경우는 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원성왕이 해당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유언을 통해서 火葬을 하기를 원하였다. 病으로 인한 사망이 火葬을 한 이유로도 볼 수 있지만²²⁾ 死因이 病이 아닌 나머지 4명 王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병으로 죽은 王들 중에도 火葬을 하지 않은 경우가

20) 鄭吉子,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 Vol.7 No.1, 1983, pp. 29~75

21) 鄭吉子, 앞의 논문, p.23, 1989.

22) 이와 관련하여 統一新羅時代의 전염병에 주목한 글이 있다. 火葬과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統一新羅時代에 잦은 전쟁과 8세기대 활발한 대외 교류를 통하여 전염병이 있었음을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현숙, 「신라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韓國古代史研究』 Vol.31, 2003.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金石文을 통해 본 火葬

(1) 文武大王陵碑²³⁾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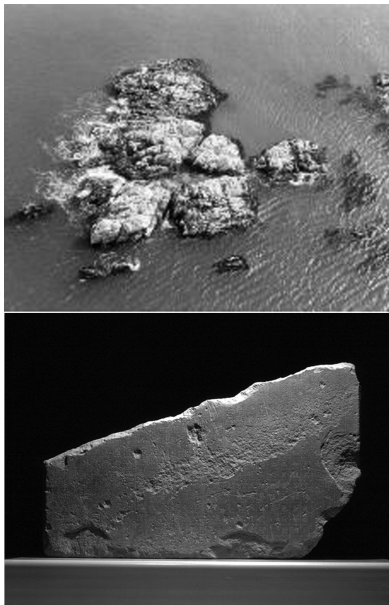


그림 1. 대왕암(上)과 문무왕릉비면(下)

文武大王陵碑는 신라 제30대 文武王의 陵碑이다. 조선 정조 때에 비편 두 개가 발견되어 중국 청나라 고증학자 劉喜海가 『海東金石苑』에 그 탁본을 실었다. 비편 가운데 하나가 1961년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주택에서 발견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682년(신문왕 2) 7월 25일에 陵碑를 건립하였고, 비문을 지은 사람은 급찬 國學少卿 金□이다. 이름은 글자가 마멸되어 알 수 없으며 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파손된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다. 비문의 내용은 대략 신라에 대한 찬미, 신라 金씨의 내력, 무열왕과 문무왕의 업적, 백제의 평정 사실 및 문무왕의 유언, 장례

에 관한 사실, 碑銘 등을 기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자들은 문무왕의 遺骨을 火葬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四天王寺에 능비만을 따로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은 가짜 왕릉을 만들고 거기에 능비를 세운 것으로 보기도 한다.

23)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124~133.

◎비문 내용

[後面]

<5행> ... (前略) 燒葬卽以其月十日火 (後略) ...

<5행> ... 火葬(火葬)을 하라 하니, 그달 초열흘에 火葬하여 ...

<20행>... (前略) 命凝眞貴道賤身欽味釋典葬以積薪... (中略) ... 滅粉骨鯨津嗣王允恭因心孝友岡 (後略)...

<20행> ... 참됨으로 응집하게 하시고, 도(道)는 귀하게 몸은 천하게 여기셨네. 부처의 가르침을 흥미하여, 장작을 쌓아 장사를 지내니 ... 경진(鯨津)에 뼈가루를 날리셨네. 대를 이은 임금은 진실로 공손하여, 마음에서 우러난 효성과 우애가 ...

(2) 甘山寺 石造立像造像記²⁴⁾ (그림 2~3)

甘山寺石造立像造像은 1916년에 경북 경주시 내동면 신계리 甘山寺址에서



彌勒菩薩立像과 阿彌陀菩薩立像이 함께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두 불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 이다. 불상의 광배 뒷면에 만든 경위를 자세하게 적은 글이 남아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미륵보살상은 719년(성덕왕 18), 아미타여래상은 720년(성덕왕 19)에 金志全이 왕과 당시 정치실력자였던 愷元, 부모 및 가족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金志全은 미륵보살입상을

그림 2. 甘山寺石造彌勒菩薩立像

만든 金志誠과 동일 인물이다. 그는 6두품으로 집사부시랑을 역임하다가 67세에 퇴임하였다. 글은 統一新羅의 문장가로 유명한 설총이 지었고, 글자는 승려 京融과 金驪源이 새겼다. 글의 내용은 6두품 출신 金志全(誠)의 행적과 신앙, 그리고 8세기 統一新羅의 불교사상을 연구하는 귀

2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293~302.



중한 자료이다. 또한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여래상을 만든 연대를 알 수 있어 統一新羅 불상 양식의 변천과정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석조입상조상기 내용

그림 3. 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

2-1.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造像記

... (前略) 亡妣官肖里夫人 年六十六古人成之東海欣支邊散之 (後略) ...

...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 부인은 나이 66세에 고인이 되어 동해 바윗가에 (遺骨을) 흘뿌렸다.

2-2. 甘山寺石造阿彌陀佛立像造像記

... (前略) 亡考仁章一古浪年卅七古人成之東海 欣支邊散也 (後略)...

.. 망고 인장 일길찬은 나이 47세에 고인이 되어 동해 바윗가에 (遺骨을) 흩뿌렸다. ...

(3) 斷俗寺神行禪師碑²⁵⁾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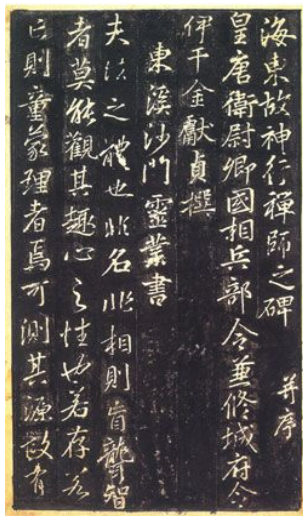


그림 4. 斷俗寺神行禪師碑文

斷俗寺神行禪師碑는 본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운리에 위치한 斷俗寺에 세웠던 비였으나 조선후기에 분실되었다. 현재 비의 전문은 탁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海東金石苑』에 따르면, 비의 높이는 5척 7촌(약 1.7m), 너비 2척 5촌(1.35m)이었다고 한다. 비문에 신행선사는 속성은 金씨로서 704년(성덕왕 3)에 태어나 30세에 출가하고, 중국에 유학하여 禪宗을 배웠으며, 귀국 후에 교화활동을 펼치다가 779년(혜공왕 15)에 입적하였다고 전한다. 신행선사가 입적한 지 35년만인 813년(헌덕왕 5) 9월 9일에 선사를 기리기 위한 목적에서 비를 건립하였다. 비문을 지은 사

람은 당시에 병부령으로서 수성부령을 겸임하고 있었던 金獻貞이고, 글씨를 쓴 이는 東溪沙門의 靈業이다. 비문의 내용은 신라 초기 禪宗史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前略) 泣血焚身盡心葬骨殆三紀 (後略)...

◎비문 내용

... 피눈물을 흘리며 火葬을 하고 온 마음으로 뼈를 장사 지낸지가 거의 36년이나 되었다. ...

2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위의 책,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16~31.

... (前略) 以招名匠畫神影造浮圖存舍利燒戒香洒定水 (後略) ...

... 이 때문에 유명한 장인을 불러 (선사의) 신령스런 영정을 그리고 부도를 만들어 사리를 보존하고 지계(持戒)의 향을 불사르고 선정의 물을 뿌렸다. ...

(4)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²⁶⁾ (그림 5)



그림 5. 寧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法興寺址에 있는 신라 말의 禪師 澄曉大師 折中(826년~900년)의 碑이다. 고려 초의 문인 崔彦攜가 짓고 崔潤이 해서로 써서 崔奐規가 새겨서 대사가 입적한 44년 후인 944년(혜종 원년)에 세웠다. 900년에 입적하여 906년에 시호를 내리고 박인범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죽어 924년에야 비문을 지었으며, 비의 건립은 944년에 이루어졌다. 후삼국 시기의 혼란기에 선사들을 우대하는 비의 건립이 지연되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비문은 전면은 36행에 1행 81자, 음기는 2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정효대사가 탄생

하여 오관산으로 출가한 후 화엄을 배우다 道允과 慈忍 등의 선사를 만나 수학하고 제방의 선지식을 찾아 수행한 이력과 헌강왕·정강왕 등의 우대를 받고 진성여왕이 국사의 예를 표하였으나 사양한 것 등 정효대사 생애를 기술한 것이다.

◎비문 내용

... (前略) 天竺拘尸之法荼毘於石室之西拾得 (後略) ...

... 천축(天竺) 구시라(拘尸羅)²⁷⁾의 법을 본받아 석실(石室)의 서쪽에서 다비(荼

26)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27) 天竺拘尸之法은 인도의 구시나가라에서 佛身을 火葬하였다는 뜻으로 火葬하는 장례법을 뜻한다.

毗)하고 ...

... (前略) 潛齋舍利得到桐林以天祐三年高起石墳安其金骨 (後略) ...

... 사리를 모시고 동림(桐林)으로 돌아가서 천우(天祐) 3년에 높이 석탑을 세우고 그 금골(金骨)을 안치하였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석문에서도 火葬에 대한 예가 적은 편이다. 이는 당시 왕과 상위계층, 그리고 高僧에 한해서만 塔碑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외 계층의 장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기사에 따르면 대왕암이 문무왕의 藏骨處로 생각되고 있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藏骨處로 보이는 그 어떠한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²⁸⁾ 이는 『三國史記』 『三國遺事』와 비문의 내용으로 대왕암을 藏骨處로 보는 의견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散骨일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사천왕사 부근에서 발견된 문무대왕릉비편은 어떻게 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統一新羅時代 왕릉의 경우 비석과 귀부의 배치에서 능과 陵碑 간의 거리가 100m 내외에 있기 때문이다.²⁹⁾ 여기에 대해서 문무왕의 장지는 火葬 후 대왕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천왕사 근처에서 확인된 비편은 교통로이자 사천왕사가 있던 곳에 세워두었던 기념물로 이해될 것이다.³⁰⁾

僧侶의 火葬은 선종과 관련된 神行禪師碑, 澄曉大師塔碑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塔碑라는 것이 高僧에 한해서만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 高僧외의 僧侶의 대다수가 火葬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火葬墓에서 그 피장자가 僧侶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승려들의 장법이 모두 火葬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³¹⁾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年報』 第12號, 2002.

29) 陵과 陵碑의 직선거리는 무열왕릉-약 76m, 성덕왕릉-약 110m, 흥덕왕릉-약 84m 이다.

30) 이와 관련되어 현재 논문을 준비 중인 김창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다. 논문이 게재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문헌기록과 금석문에 火葬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본 결과, 散骨과 藏骨 모두가 확인되며, 王과 僧侶 등과 같은 특정 계층의 인물만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기록을 통한 火葬은 散骨과 藏骨의 여부, 승려의 경우는 언제 승탑을 세웠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다.

2.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사례

慶州地域의 火葬墓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경주의 고분 발굴과 각종 砂防工事 중에 藏骨器를 수습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火葬墓와 藏骨器가 확인 조사되었다. 火葬墓는 火葬 후 그 遺骨을 뿌리는 散骨과 달리 火葬한 遺骨을 모아서 무덤을 만드는 藏骨의 형태이다. 散骨은 문헌 기록에만 존재할 뿐 이와 관련된 遺構와 遺物은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慶州地域에서 조사된 火葬墓는 모두 藏骨의 형태에 해당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慶州地域 火葬墓의 사례를 조사된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충효동 6호 석실분³²⁾ (그림 6)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書』에 의하면 고분 10기 중에 6호분은 관대가 놓여 있고, 관대 아래의 점토에서 목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점토를 들어 내니 粘板암반이 나타났는데 불에 탄 듯 붉은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5호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6호분 玄室 四隅에 있는 巖盤凹所에서 각각 1점씩 모두 4점의 토기가 안치되어 있었다. 이 토기들은 기

31) 山本孝文는 백제의 火葬墓에서 단독으로 조영되어 있는 경우 그 피장자가 승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山本孝文, 앞의 논문, 2003.)하지만 이는 입지를 통하여 사찰과의 살펴 본 것으로 이 외의 火葬墓나 藏骨器의 자료를 보았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따르기는 어렵다.

32) 有光教一, 앞의 책, 1937.

형·크기·문양 등이 동일하였고, 4점의 토기 중에 東北隅의 토기에서 硝子勾玉 1개, 琉璃小玉 3개, 장방형 銀板 1매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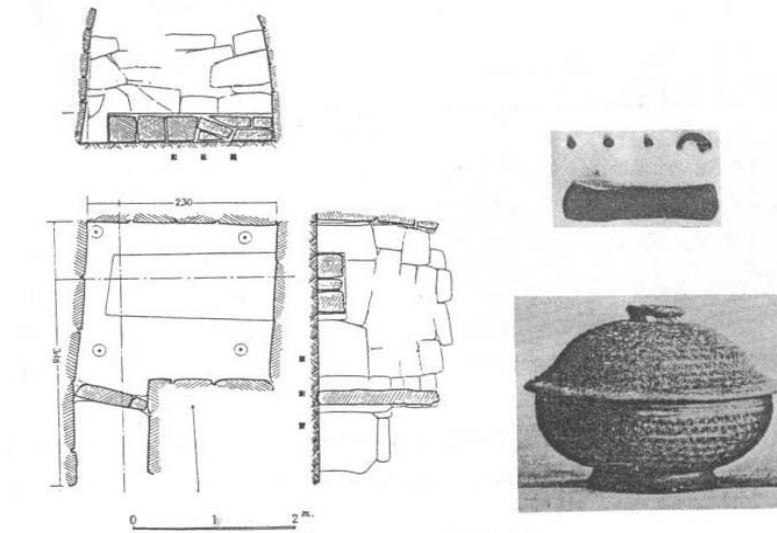


그림 6. 충효동 6호 석실분

鄭吉子는 목탄과 불에 탄 암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피장자를 火葬한 火葬處이자 四隅의 토기에서 사리의 일괄 유물과 유사한 부장품이 출토되었으므로 불교적 성격을 띠는 火葬墓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³³⁾ 그렇지만 6호분은 시신을 올려놓는 관대가 있고, 석실 벽면이나 천정에서는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언급이 없어 火葬墓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2) 충효동 3호 석실분 봉토 발견 火葬墓³⁴⁾ (그림 7)



일제강점기에 현재 경주 충효동 소재의 횡혈식석실분 10기를 발굴할 때, 3호분 북쪽 봉토분 1m정도 아래 지점의 퇴적된 토사에서 토기 1점이 남은 채 발견되었다. 이 토기는 藏骨器로 추정되는데 墳頂에 가까운 지점에 소형수혈을 파고 매장했던 것이 봉토

그림 7. 충효동 3호 출토 廣口扁球壺

33) 鄭吉子, 앞의 논문, 1989.

34) 有光教一, 앞의 보고서, 1937.

의 붕괴로 토사에 묻힌 채 출토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형은 廣口扁球壺이며, 문양은 삼각집선문·반원점문을 시문하고 있다.

3) 충효동 고분군-구릉지대 지하소형수혈 火葬墓³⁵⁾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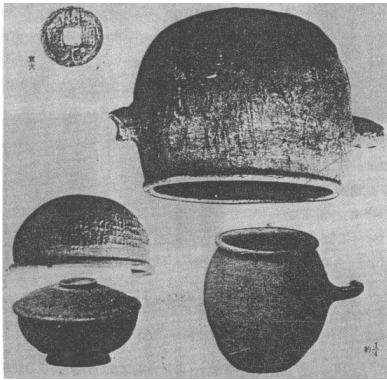


그림 8. 충효동 고분군 수습된 藏骨器

1933년 8월 5일 日人들에 의해서 경주 충효동일대에서 10기의 횡혈식석실분 발굴이 마친 후, 이들 석실분이 있었던 구릉 정상부에 水道濾過池工事 중과 남산 쪽의 砂防工事 중에 발견된 藏骨器로 보이는 토기들이 석함이나 다른 시설 없이 地表下 50cm내외의 수혈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鄭吉子³⁶⁾는 이 경우 火葬墓 중에 가장 간단한 형식이고, 별다른 매장시설 없는 것으로 보아 서민들의 火葬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단지 수혈을

파서 藏骨器를 매납했기 때문에 그 火葬墓의 피장자가 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수혈의 형태인 모든 火葬墓의 경우 모두 서민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4) 경주 남산-板石四壁의 方形火葬墓³⁷⁾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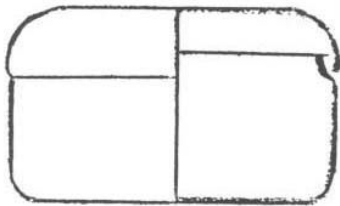


그림 9. 남산 板石四壁 출토 藏骨器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에서 높이 30cm, 폭 38cm, 두께 12cm의 판석으로 바닥과 四壁을 구성한 방형 火葬墓가 얇은 지표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판석으로 된 방형 석곽 안에서 藏骨器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다수

35) 有光教一, 앞의 보고서, p. 235.

36) 鄭吉子, 앞의 논문, 1989.

37) 薺藤忠, 앞의 책, 1973.

薺藤忠, 앞의 논문, 1936.

의 藏骨器가 남산에서 수습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격납되어 있다.

5) 慶州 李氏 始祖 誕降址³⁸⁾

금강산의 남록에 위치하고 있는 瓢巖의 東便 앞은 구릉에 화강암반이 불규칙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 암반 가운데 한 암반에서 장방형의 바위 홈이 파져 있는데, 현재 이곳은 경주 李氏의 시조탄강지로 알려져 있으며, 光臨臺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이곳 내부 바위 홈에서 인화문 파수부호가 1점이 1960년경에 지표 수습되었다고 한다.

유구의 크기는 가로 200cm, 세로 130cm 크기로 평면을 整地한 상면 내부에 크기 105cm*62cm, 깊이 25cm 내외의 크기로 장축은 正東西 방향으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바위 홈이다.

수습된 유물은 印花文이 시문된 牛角形把手附壺로 뚜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수습유물이 지표면에 노출된 상태로 이미 유실되었을 가능성과 소형의 藏骨器는 자연석을 뚜껑으로 흔히 이용하기 때문에 수습당시에 이러한 점이 인식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습당시에는 지표에 노출된 1점만 수습되었지만 내부에서 다른 유물이 공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6) 동천동 출토 청동방형사리함³⁹⁾ (그림 10)

경주 동천동 출토로 알려진 청동방형사리함 1점이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1964년 경주 동천동 藥山 중턱에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방형석제함⁴⁰⁾ 속에 청동방형사리함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석함은 한번의 길이가 40cm로 뚜껑이 있었고, 내부는 중앙에 가로·세로 각각 20cm, 깊이 10.5cm의 사리공이 있었으며, 바닥면의 길이는 한 변이 15cm이었다고 한다.

38) 경주이씨 中央花樹會, 瓢巖花樹會, 『민주주의발상지 경주 표암 성역화사업 기본계획보고서』, 2002.

39) 通度寺聖寶博物館,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特別展圖錄10, 2000, pp. 114~115.

40) 이 석함은 현재 소장처가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그림 10. 동천동 출토 청동사리함

2.5mm 가량 들어가 있어 뚜껑과 맞물리도록 턱을 두었으며, 4면에는 선각으로 매우 간략하게 사천왕상을 새겨 놓았다.

발견자의 증언에 의하면,盒안에는콩알크기의 둥근 물체가 있었는데 손으로 만지자 백색가루로 부서져 없어졌다고 한다. 사리함이 발견된 석함 안에서는 흙과 火葬된 인골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리함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7.3cm, 폭은 7.31cm로 보주형 꼭지가 붙어 있으며, 꼭지를 중심으로 상·하단면에 각각 3엽의 花葉文이 2단으로 상하 엇갈리게 배치되었다. 동체부 구연 안쪽으로

7) 조양동 출토 정방형 석함⁴¹⁾ (그림 11)



그림 11. 조양동 출토 석함

북은 唐나라 상류층이 사용한 것으로 당삼채삼족복의 年代에 대해서 唐나라 測天武后 말년인 7세기말~8세기초에 제작되어 玄宗元年·天寶年間(8세기 중엽)까지 계속되다가 天寶年間 安史의 亂(755)을 계기로 급격히 소멸된다. 그러므로 조양동에서 확인된 석함과 당삼채삼족복은 8세기 전반기의 藏骨器로 편년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73년 조양동에서 정방형석함은 聖德王陵 남쪽 300m 야산기슭에서 발견되었다. 화강암으로 만든 석함에 唐三彩三足鍍에 遺骨을 담아 藏骨器로 사용한 사례이다. 당삼채삼족복의 뚜껑은 청동제 접시형이며, 뚜껑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으나 銅 녹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웠다고 한다. 당삼채삼족

41) 월간문화재사, 『唐三彩三脚壺』, 『월간문화재』, 1973.

8) 천마총 봉토 출토⁴²⁾ (그림 12)



그림 12. 천마총 봉토 내 토기 출토 상황

1973년 4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서 155호분이 발굴 조사되었다. 이 발굴 중 역시 황남대총과 같이 封土 頂上에서 동북쪽 地表下 30cm 수혈에서 약탕관형 토기 2점이 출토되었다. 토기內에는 흙이 채워져 있었고 토기 흙 속에서 절단된 철판 1점씩이 각각 들어 있었다

고 한다. 이에 대한 실측도나 근접사진이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여기서 확인된 철판에 대해서 鄭吉子는 고대 인도에서는 태양숭배사상에 의해 금빛나는 황금을 태양에 비유하여 不死性, 種子, 生命의 원리로 보았다고 한다. 이러한 황금의 상징성이 불교성립 이후에 불교에 수용되어 사리용기 안에 사리와 함께 금판을 봉안하는 의식이 전승되어 온다고 한다. 그리고 금판을 구하기 힘든 계층은 銀板, 鐵板, 유리판 등을 대용품으로 납입하는데, 이러한 것은 경주 충효리 6호분 토기內에 철판, 유리, 옥들이 들어 있던 사례 등을 통해서 천마총 봉토 수혈에서 출토한 과수부옹은 藏骨器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⁴³⁾

9) 황남대총 北墳 봉토 출토⁴⁴⁾ (그림 13)

1973년 6월~1974년 12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친 98호분 북분 발굴 중에 봉토 1m정도에서 마구류, 대형 경질토기, 藏骨器나 胎壺로 보이는 토기 유개합,

42)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天馬冢』發掘調査報告書, 1974, p.66.

43) 鄭吉子, 앞의 논문, 1989.

44)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皇南大冢』發掘調査報告書, 1985, p.52.

4구의 인골, 약탕관형의 파수부호 2점, 백자소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봉분 정상부 60cm정도의 깊이에 매장되었던 마구류는 천마총에서도 같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황남대총 조성 당시에 무덤 주인공과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봉토출토 유물들은 황남대총 조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무덤 주인공과 관련 없이 매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藏骨器로 보이는 유개합은 봉토 표면 거의 전역에서 특별한 매장시설 없이 깊이 30cm에서 출토되었다. 몇몇 유개합의 경우에는 직경 2~3cm 작은 자갈들이 많이 섞인 점토가 굳게 다져져 있는 것을 확인되었고, 뚜껑이 잘 닫힌 유개합의 바닥에는 흑갈색 흙 같은 물질이 약간 엉겨 붙어 있어 藏骨器였을 가능성이 있다.

황남대총 봉토 출토의 유개합과 동일한 기형과 무늬를 가진 토기가 일제강점기 藏骨器로 수습된 사례가 있어 藏骨器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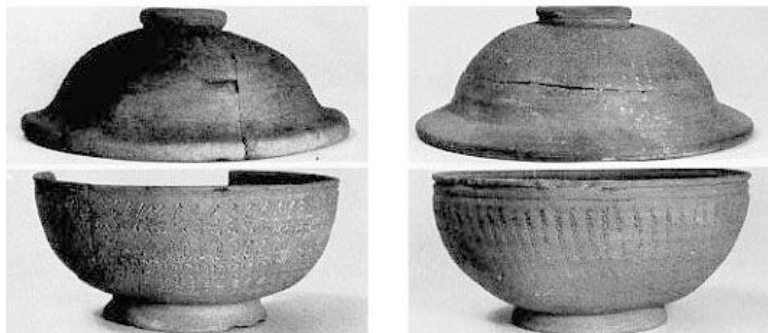


그림 13. 황남대총 북분 봉토 내 출토 유개합

10) 안압지⁴⁵⁾ (그림 14~15)

雁鴨池 西便 臨海殿址로 推定되는 건물들 사이에서 3점의 골호⁴⁶⁾로 추정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중 2점은 거의 완형이나 나머지 1점은 동체부 이하만 남아 있어서 原形을 알 수 없다.⁴⁷⁾ 이 골호들은 建物이 세워지기 이전의

45)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雁鴨池』發掘調査報告書, 1978, p.198.

46) 여기에서는 보고서 내용대로 골호로 하고자 한다.

47) 하지만 보존처리 후 유개연결고리호 2점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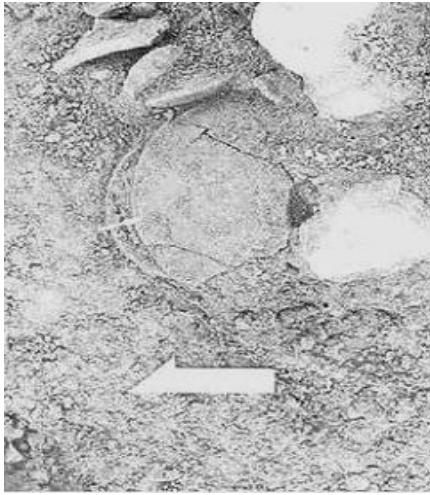


그림 14. 안압지 藏骨器 출토상황

토층에서 출토되었다는 점, 또한 건물이 建立된 이후에는 이곳에 埋葬이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臨海殿 건립 이전에 제작된 토기로 보았다. 骨壺속에서는 開元通寶가 출토되어서 이 骨壺들이 臨海殿 건립 이전 것이라고 하지만, 三國時代 最末期이나 統一極初期의 作品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新羅土器 편년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토기라 하겠다. 출토된 토기는 다음과 같다.

骨壺 1은 壺는 배가 팽창된 平底短頸壺이며 이 骨壺內部에는 開元通寶 4點, 유리玉 4點과 腐蝕骨片들이 들어 있었다. (壺 : 高 15.7cm, 口徑 11.4cm, 胴徑 17.8cm / 蓋 : 高 6.2cm, 口徑 15.2cm)

骨壺 2는 구연이 외반된 圓底壺로서 건부와 동체에 각각 2조의 돌선대가 둘러있고, 동체부 돌선대에 대칭으로 直徑 1.2cm 정도 크기의 圓形 突起를 눌러 붙였다. (壺 : 高 18.5cm, 口徑 12.3cm / 蓋 : 高 3.8cm, 徑 17.5cm)

骨壺 3은 연못內에서 전형적인 유개연결고리호가 3개체가 출토되었는데 실제 藏骨器로 사용되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우연히 연못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모두가 파손되었지만 동체는 연결고리유개호로 뚜껑은 1개만 수습되었다. (胴身: 高 22~26.8cm, 口徑 27.4~38.3cm / 蓋: 高 29cm)



그림 15. 안압지 출토 骨壺 (左에서부터 骨壺1, 骨壺2, 骨壺3)

11) 傳 閔哀王陵 출토 元和十年銘 藏骨器⁴⁸⁾ (그림 16)

경주 서남쪽 谷口 우측 碧桃山줄기에 위치한 왕릉 규모의 고분이 傳 閔哀王陵이다. 1984년에 傳 閔哀王陵 서북방 丘陵頂部 1트렌치에서 元和十年銘의 藏骨器가 다량의 골편, 골분을 內納한 채 발굴되었다. 이 藏骨器가 발굴됨으로써 傳 閔哀王陵의 주인공은 閔哀王(838~839)이 아니라 815년을 下限으로 하는 능묘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815년 이전에 능묘가 영조된 이후에야 봉토에 藏骨器를 매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元和十年’銘 藏骨器 기형은 뚜껑과 몸체 四方에 상하로 구멍을 뚫은 연결고리유개호로 전용 藏骨器의 기형이다. 이러한 기형은 815년 이전부터 제작되어 화려한 押印文을 施文 하고, 연결고리 부착위치가 相距하는데 반하여 ‘元和十年’銘 맺음고리 달린 합은 押印文이 사라지고 횡렬 凹線만 남아 있으며, 뚜껑과 몸체 맺음고리 부착위치가 상접하는 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藏骨器 편년에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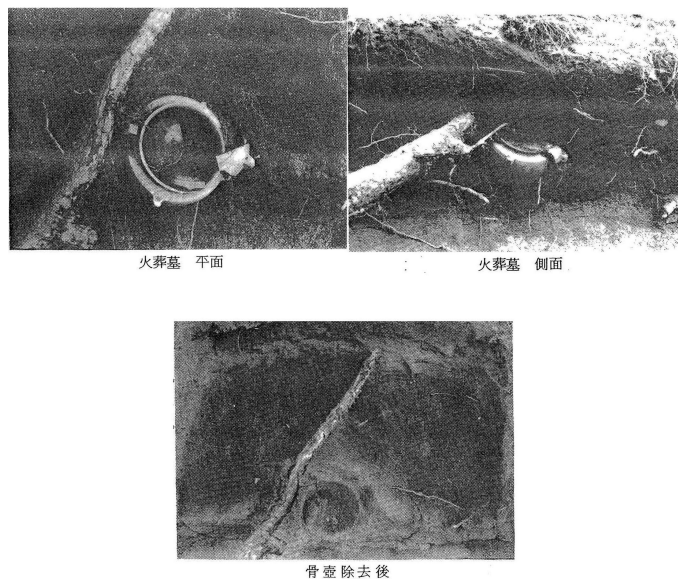


그림 16. 傳 민애왕릉 출토 ‘元和十年’銘 藏骨器 출토 상황

48) 鄭良謨李健茂崔鍾圭, 「傳閔哀王陵 周邊整備 報告」, 國立慶州博物館, 1984.

12) 석장동 동국대 교내 학생회관 신축부지출토 火葬墓⁴⁹⁾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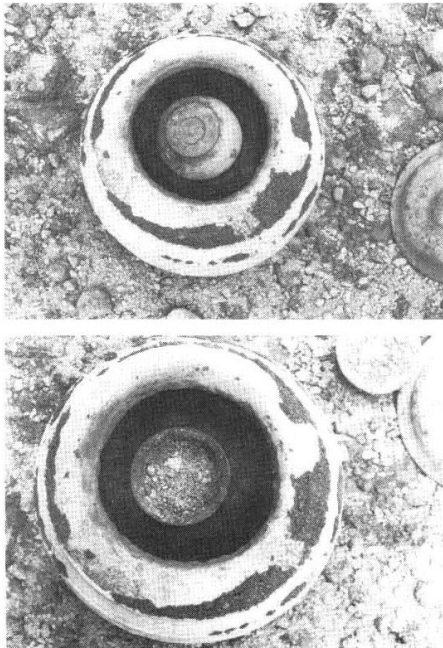


그림 17. 석장동 학생회관 부지 藏骨器 출토 상황

경주시 석장동에 소재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1984년 학생회관 신축공사 중에 내·외호 1조로 된 藏骨器가 출토되었다. 당시의 출토상황이 발굴 조사되지 않았지만 출토지의 현장사진이 남아 있어서 그 양상을 알 수가 있다.

藏骨器가 확인된 위치는 학생회관 건물의 뒤쪽 부분으로 표고 48m정도이다. 당시 사진과 목격자에 의하면 이 藏骨器는 현 지표 아래 50cm정도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藏骨器의 출토 양상은 외호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청자완⁵⁰⁾이 바닥을 위로 하여 내호를 덮고 있고, 내부에는 뼈가루가 있었다고 한다.

유물은 藏骨器 외호로 사용된 陶質短頸壺 1점, 外壺蓋 1점, 월주요계 해무리굽인 靑磁碗 1점, 長頸壺 1점으로 모두 4점이다. 월주요계 청자완의 사용과 내호의 기형과 단선파상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9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하였다.⁵¹⁾

13) 동천동 산 13번지 출토 火葬墓⁵²⁾ (그림 18)

49) 李熙濬, 「慶州 錫杖洞 東國大 區內 藏骨器」, 『嶺南考古學』 11輯, 1992, pp.139~150.

50) 월주요계 청자완의 구연부가 마연되어 있는데 보고자는 이를 인위적으로 깨고 마연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감한 결과 사용하던 청자완을 내용기의蓋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1) 9세기대에 토기는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이 대표적으로 월주요계 청자완과 함께 공반되어 출토된다.(최맹식,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소고」, 『文化財』 제24호, 1991.) 하지만 석장동 학생회관 부지에서는 해무리굽 청자완만이 확인되고 있어 9세기 중엽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는 점에서 오히려 8세기말이나 9세기 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5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東川洞 收拾調査 報告」, 『1994年報』, 1995.



그림 18. 동천동 火葬墓 노출상태

1986년 3월 공군 제 7516부대가 훈련 중에 경주 동천동 산 13번지에서 토기를 발견하여 매장문화재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른 수습조사로 황혈식석실분 1기와 火葬墓 1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 출토된 유구는 소형의 석곽으로 서남쪽 모서리가 유실된 상태였지만 蓋石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곽의 토광은 장축 95cm, 단축 90cm로 거의 방형에 가깝게 파고, 그 내부를 13~40cm의 할석으로 5단 정도 축조하였다. 개석은 길이 50~60cm의 할석 2매를 이용하여 덮었다. 석곽의 내부 충진토는 회색점토가 반점으로 혼합된 마사토이며 전체적으로 매우 단단한 편이었다. 석곽의 내

부공간은 장축 63cm, 단축 50cm로 내부에 유개합 1점을 남벽쪽에 붙여 안치고, 유개고배 5점을 유개합의 서쪽과 북쪽에 나란히 둘러서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당시까지 慶州地域에서 조사된 예가 없는 소형석곽에 藏骨器를 안치한 것으로 매우 특이한 예였다. 보고자는 小壺縮小型 꼭지가 달린 球形의 臺附盒은 토기의 편년으로 비추어 보아 고신라말기의 것으로 藏骨器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보았다. 그래서 火葬墓의 축조 역시 6세기 후반대의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⁵³⁾

14) 화곡리 1리 火葬墓⁵⁴⁾ (그림 19)

53) 홍보식은 자신의 토기편년을 통하여 보고자와 달리 현재까지 조사된 火葬墓 중 가장 이른 시기인 7세기 초로 보았다. 홍보식, 앞의 논문, 2001.

54) 국립경주박물관, 『新羅의 土俑』, 1989, pp. 79~81.



그림 19. 화곡리 출토 藏骨器

경주시 내남면 화곡1리 산 24번지에서 양잠사 신축을 위해 언덕을 포크레인으로 整地하던 중에 토기를 내습한 석함과 도제 12지신상을 수습하였다. 卵形 石函내에는 9세기경으로 보이는 연결고리유개호가 내용기로 들어 있었고, 卵形石函 주위에 12~15cm 높이의 도제 12지신상이 방위별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統一新羅 왕릉호석에 12지신상을 조각하여 方位神 구실을 했던 葬俗이 藏骨器를 매장한 火葬墓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도제 12지신상을 능묘내부에 매

장하는 것은 唐俗으로만 알려졌으나 신라에서도 발굴되었으므로 羅·唐간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화곡 1리 발견 卵形石函은 국립경주 박물관과 경북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卵形石函과 유사하며, 藏骨器로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의 경우 傳민애왕릉 출토 ‘元和十年’銘 藏骨器와 비교했을 때 그 기형이 유사하므로 9세기 초의 火葬墓로 추정된다.

15) 석장동 동국대 교내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⁵⁵⁾ (그림 20)

석장동유적은 1차 발굴조사는 1993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내 자연과학관 건물신축 배수로 공사구간에서 유물이 확인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곳은 해발 60m의 구릉 능선부에 위치하며, 발굴면적은 길이 36m, 폭 5~8.5m로서 총 215㎡에 달하며,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수혈 1기가 있고, 역사시대의 유구로 횡혈식 또는 횡구식석실묘 4기, 火葬墓 1기가 확인되

55)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洞遺蹟』, 1996.

었다.



그림 20. 석장동 5호 火葬墓

火葬墓는 1호 석실분 중앙부에 직경 65cm, 깊이 45cm의 방형에 가까운 평면 원형수혈을 마련하고 그 속에 無文 罽을 뚜껑으로 한 兩耳附壺를 藏骨器로 사용하였다. 보고자에 따르면 火葬墓의 시기는 横耳가 부착되는 結合式 藏骨器가 8세기 전반경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7세기 후반대로 추정하였다.

16) 황성동 545번지 출토 23호 토광⁵⁶⁾ (그림 21)



그림 21. 황성동 23호 토광

1994년 경주시 황성동 545번지가 신흥로알맹선 2차 부지로 선정되면서, 건물신축이전에 이루어진 유적조사로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경주대학교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의 3개 기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목곽묘 52기, 옹관묘 14기, 토광1기로 총 67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구의 중심 연대는 2세기 중엽부터 4세기 중엽

에 이르는 목곽묘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 중 토광으로 추정되는 火葬墓 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잔존한 수혈은 지름 40cm, 깊이 20cm이며, 도질옹 1점이 매납되어 있었다. 옹의 색조는 암회청색이고, 胎土에는 굵은 장석이 다량 포함된 粗質이다. 동체 내외면에는 뚜렷한 회전성형 흔적이 남아있고, 동체 하위와 저부는 깎기 처리를 하였다. 보고자는 주변 유적의 성격과 시기가 판이

56)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隍城洞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2002, p. 20.

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유구를 火葬墓로 추정하고 있다. 유물의 크기는 高 20.5cm, 口徑 13.6cm, 底徑 9.4cm, 胴最大徑 20.5cm이다.

17) 석장동 동국대 교내 학생복지관 부지⁵⁷⁾

석장동유적 6차 발굴조사는 2001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교내 학생복지관 신축을 계획하면서 그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석실분·석곽분 81기, 火葬墓 5기, 高麗·朝鮮시대~近世 분묘 13기, 집석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지는 正南으로 경사진 사면의 해발 60~90m 사이에 위치한다.

현재까지의 慶州地域발굴조사에서 다수의 藏骨器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火葬墓의 구조라든지 형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밝히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석장동유적의 火葬墓를 통해 統一新羅 火葬墓의 구조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가) 석장동 51호 火葬墓⁵⁸⁾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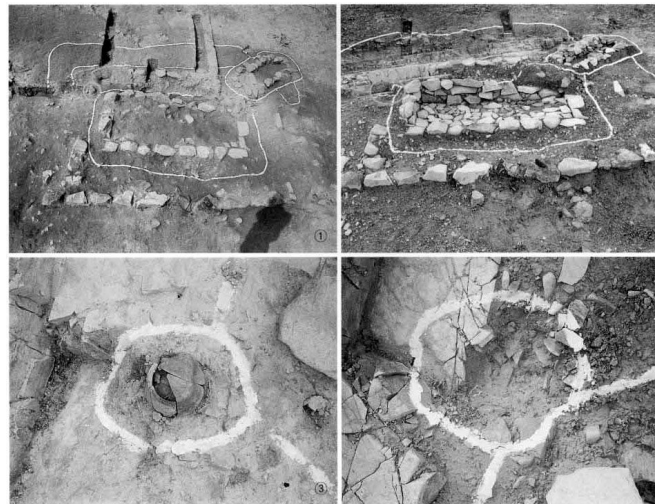


그림 22. 석장동 51호 火葬墓

57)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東國大學校內 錫杖洞 古墳群 發掘調査 略報告書」, 2001.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校內 學生福祉館敷地遺蹟 I」, 『錫杖洞遺蹟IV』, 2004.

58)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校內 學生福祉館敷地遺蹟 I」, 『錫杖洞遺蹟IV』, 2004, pp. 9~11.

석장동 51호 火葬墓는 조사구역의 중앙 최상단부에 설치된 25호분 石室墓의 북서 모서리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火葬墓는 직경 30~40cm 내외인 타원형의 굴광 내부에 유개과수부호 1점을 藏骨器로 사용하여 埋納된 형태이다. 굴광의 최대 잔존깊이는 8cm로 유구의 굴광 단면은 반구형이며, 藏骨器 상부에서는 蓋를 대신해 대부완이 뒤집혀 덮어져 있었다. 藏骨器의 내부는 흙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藏骨器 내부에 채워진 흙을 조사 결과 인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 석장동 61호 火葬墓⁵⁹⁾ (그림 23)

석장동 61호 火葬墓는 조사구역 동편 남쪽 하단의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2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해 직경 210×190cm의 원형 外護石을 설치하였으며, 외호석 내부에 다시 크기 15cm 내외의 할석을 이용, 직경 110×100cm 크기의 방형 內護石을 돌렸다. 다시 방형 내호석 내부에 직경 35cm의 방형 석곽을 설치하였으며, 그 내부에 有蓋印花文骨壺가 안치되어 있다.



그림 23. 석장동 61호 火葬墓

5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pp. 11~14.

방형석곽의 구조는 바닥에 편평한 냇돌을 깔 다음 그 위에 할석과 냇돌 4매를 서로 직교하게 하여 설치하였다. 석곽의 상부에는 石蓋나 木蓋를 덮지 않고 호석에 사용되는 석재를 덮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봉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유구의 상태로는 그 봉분의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형 외부호석의 남동쪽에 붙어서 방형의 제단시설로 추정되는 石列시설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은 130×60cm의 크기로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사용된 석재는 20cm 내외 크기의 할석과 냇돌이다. 구획한 내부는 석흙으로 채웠다.

다) 석장동 62호 火葬墓⁶⁰⁾ (그림 24)

62호 火葬墓는 61호에서 동편으로 약 3.4m 떨어져 위치한다. 원형의 호석열을 가지며, 호석열 내부에는 130×85cm의 굴광이 있고, 그 내부에 직경 20cm 내외 크기의 할석으로 축조된 소형의 석곽형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원형의 호석열은 경사면의 위쪽부분에만 잔존하고 있다.

석곽형 시설의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내부크기는 90×30cm로, 형태로 보아서는 소형석곽과 매우 흡사하다. 보고자가 이 유구를 火葬墓로 추정하는 것은 석곽의 단면구조가 반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의 호석열 또한 인접한 61호 火葬墓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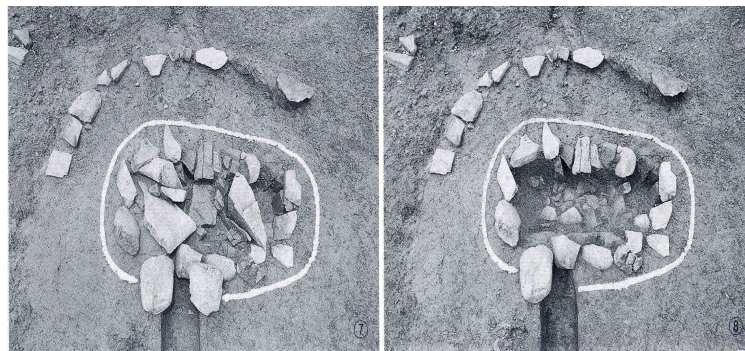


그림 24. 석장동 62호 火葬墓

60)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pp. 14~15.

라) 석장동 68호 火葬墓⁶¹⁾ (그림 25)

68호 火葬墓는 조사구역 중앙부의 급격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유구는 직경 10~20cm 내외의 할석과 천석을 이용해 크기 140×160cm의 방형 외호석을 설치한 다음, 그 내부에 다시 크기 10cm 내외의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크기 80×90cm의 방형 내호석을 설치하였다. 내호석의 내부에는 반구형의 수혈에 대형의 碗을 안치하였다. 대형완의 상면에는 대호의 동체부편을 덮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하고 있는 호석은 1단이나 火葬墓가 입지한 곳이 傾斜面인 점을 감안한다면 2단 이상의 호석열이 시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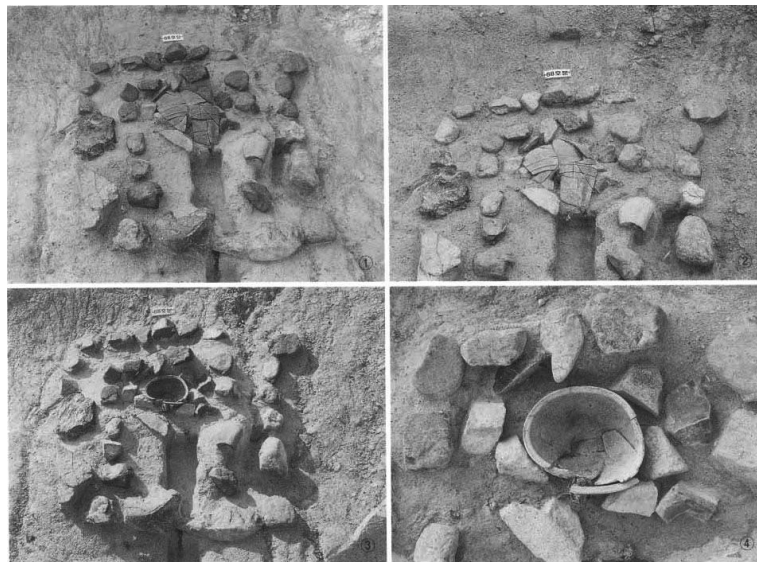


그림 25. 석장동 68호 火葬墓

마) 석장동 73호 火葬墓⁶²⁾ (그림 26)

73호 火葬墓는 28호 석실묘의 溝가 매립된 이후, 이를 파괴하고 시설되었다.

61)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pp. 15~17.

62)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pp. 17~18.

호석시설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火葬墓의 구조는 135×115cm 크기의 방형 굴광 내부에 30×40cm 크기의 할석을 이용해 20×35cm 크기의 방형석곽을 만들고, 그 내부에 나무곽을 만든 후 인골을 안치하는 형식이다. 내부구조에서 방형석곽을 덮고 있던 2매의 천석으로 된 개석을 확인되며, 개석의 크기는 30×20cm 내외이다. 이 2매의 개석 위에는 다시 크기 35×55cm의 부정형 할석 1매가 놓여져 있어, 개석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음을 확인된다. 이 방형석곽과 굴광 사이에 직경 20~25cm 내외의 할석이 채워져 있었다. 방형석곽의 내부에서는 인골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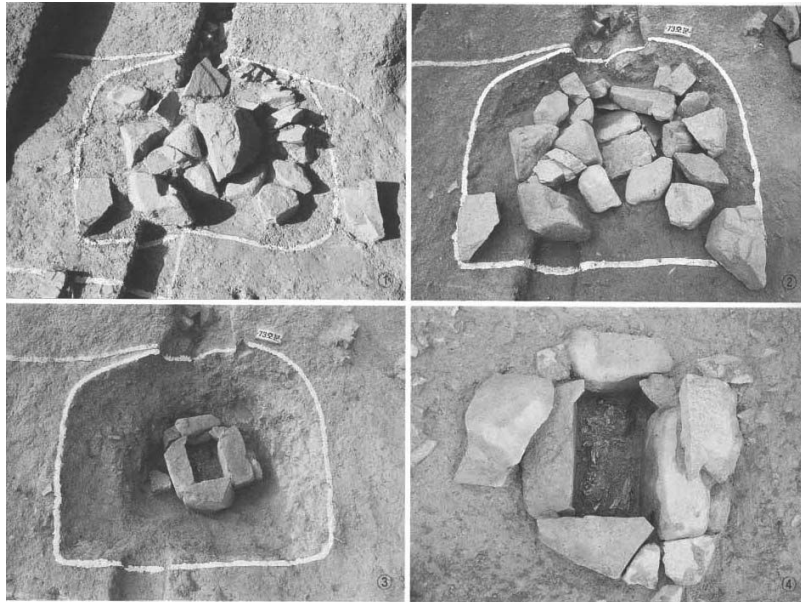


그림 26. 석장동 73호 火葬墓

18) 甲山里 遺蹟 내 火葬墓⁶³⁾ (그림 2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안강~청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갑산리유적에 대해서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3기, 적석석관묘 1기, 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석실묘 3기와

6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州 甲山里遺蹟』, 2006.

火葬墓 1기가 그리고 조선시대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확인된 火葬墓는 적석석곽묘의 북쪽에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해발고도 42.3m의 선상에 위치하여 직경 30cm의 수혈을 파고 유개함을 매납하였다. 출토 유물인 유개함을 살펴보면, 우선 蓋는 경질의 토기로 蓋身 외면에 반원형의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대부완은 외면 상위 2줄의 횡침선, 중위의 2줄의 나선형 횡침선을 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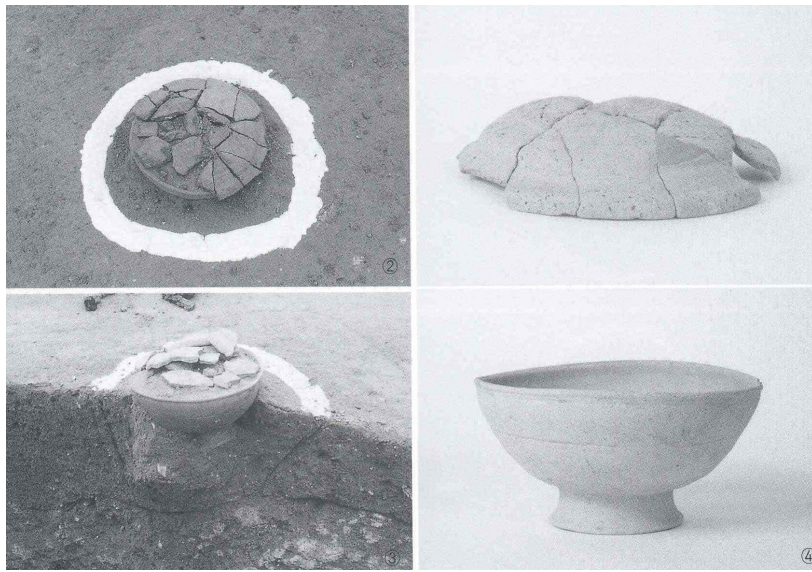


그림 27. 갑산리 5호 火葬墓

19)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⁶⁴⁾ (그림 28)

2005년 3월~6월까지 경주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에 위치한 횡혈식석실분 1기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호석 주변 3곳에서 매납유물이 확인되었다. 1호 매납유물은 호석 동쪽에, 2호는 호석 북쪽에, 3호는 북쪽 호석에 접해서 2호 매납유물의 북동쪽에서 위치한다. 1호의 경우는 호석 보강토 위에서 유개함이 확인되었으며, 수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2호의 경우 호석 보강토를 지름 53cm, 잔존깊이 23cm 파고 들어간 점과 이 지점의 호석이 밖으로 밀려서 무너진 점

6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2005.



그림 28. 황성동 석실분 호석 주변 매납유물2

등으로 볼 때, 석실분 축조 후에 매납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여기에서 출토된 유개호가 보주형의 꼭지를 하고, 원형의 透孔이 있는 점에서 藏骨器와의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토기 내에서 인골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⁶⁵⁾ 3호의 경우 호석 보강토 하층에서 확인되었으며 지름 24cm, 잔존깊이 14cm 정도의

원형의 수혈을 파고 인화문이 시문된 함이 확인되었다.

이상 慶州地域에서 확인된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火葬墓는 시신을 火葬한 후 遺骨을 수습하여 藏骨器⁶⁶⁾에 담아 매장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에 있어서 藏骨器는 대부분이 토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火葬墓의 구조도 간단한 단일형과 이중형의 형태가 보이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火葬墓나 藏骨器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으나 다른 성격의 유물이나 유구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火葬墓나 藏骨器는 제사나 제의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과 그 양상이 유사하여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을 아래에서는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인골의 유무이다. 火葬墓와 藏骨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골, 즉 遺骨의 有無이다. 물론 세굴장인 경우에도 인골이 확인되지만 火葬한 인골의 경우는 분쇄된 상태가 대부분이며, 인골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遺骨이나 뼈를 담은 용기의 크기

65) 보고서에서는 경주 황성동 석실분의 토양에 대한 분석한 자료에서 1~3호 매납토기 내의 토양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기물함량에 있어서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5, p.126~137.

66) 藏骨器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세굴장의 경우에 육탈된 뼈를 그 어떠한 용기에 담은 경우도 藏骨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火葬한 遺骨을 담은 용기에 한해서 藏骨器라 칭하고자 한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후술하고자 한다.

둘째, 藏骨器의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인골이 확인되지 않아서 火葬墓와 藏骨器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8세기경으로 편년되는 유개연결고리호는 일상용의 토기는 그 기형 자체가 다르며, 출토되는 곳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개연결고리호는 遺骨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藏骨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6세기말~7세기 초에 藏骨器로 보이는 토기는 그 형태만으로 구분하기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火葬墓가 수용되는 시점으로 藏骨器의 대부분이 유개함으로 일상용 토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아직은 그러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火葬墓의 구조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火葬墓의 구조는 수혈을 파서 藏骨器를 묻는 형태와 석곽이나 석함 또는 같은 토기를 이중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있다. 하지만 수혈의 경우는 다른 성격의 유구와 출토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봉분 수혈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火葬과 관련된 藏骨器로 보는 견해와 제사나 제의와 관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⁶⁷⁾ 이는 매납방식만으로 구분하기에 그 양상이 거의 유사하여 결정적인 구분 기준인 인골 有無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골이 출토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유개연결고리호와 같이 정형화된 藏骨器의 형태를 띤 토기의 경우 인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제의와 관련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황남대총 북분이나 천마총의 봉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확인된다.

...(前略) 그 후 속인이 死胎를 낳을 때 세간에 퍼진 말로, '福 있는 사람의 묘에 묻으면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여 남몰래 원광의 무덤 옆에 묻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벼락이 사태를 쳐서 무덤 밖으로 내던졌다. 이 일로 인해 평소 그

67) 이와 같은 경우, 제의와 관련되어 보는 연구자와 藏骨器로 보는 연구자들은 동일한 유구를 각각의 유구로만 파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를 공경하지 않던 이들도 그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 (後略)...⁶⁸⁾

이 기사는 이미 조영되어 있는 무덤의 봉분에 몰래 藏骨器를 묻는 행위⁶⁹⁾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이들의 무덤에 묘를 조영함으로써 자손의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의와 관련시켜서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藏骨器와 鎮壇具⁷⁰⁾의 구분이다. 안압지의 경우 임해전지 적심석 아래의 생토층에서 확인되었다는 藏骨器의 경우 이를 鎮壇具로 구분하기도 한다.⁷¹⁾ 보고서에서는 출토된 3점의 토기 중 1점의 단경호 내부에서 부식된 골편이 확인되어 이를 藏骨器로 보았다. 하지만 이는 적심석 아래에서 출토된 점에서 건물지와 관련된 鎮壇具의 성격이 강하며, 부식된 골편이 과연 인골편인지 정확하지 않아⁷²⁾ 鎮壇具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연못에서 확인된 연결고리유개호의 경우는 기형이 8세기에 유행하는 연결고리호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藏骨器의 외용기로 추정된다. 鎮壇具와 藏骨器의 구분은 출토양상을 통하여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에서 나온 경우는 鎮壇具일 가능성이 높으나 어떠한 시설물과 관련 없이 확인되는 경우는 藏骨器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넷째, 藏骨器의 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火葬에 있어서 인골의 양은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1.5ℓ~1.8ℓ로 藏骨器의 높이는 거의 20~30cm 정도이다.⁷³⁾ 이에 대해서 藏骨器의 크기 즉 높이에 대해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살펴 보았다. 지름이 15cm인 원통의 계량용기에 1ℓ는 높이가 7cm가 된다. 그렇다면 인골의 양으로 보았을 때는 10.5cm~12.6cm가 된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68) 『三國遺事』 4卷 5義解-圓光西學

69)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盜葬) 또는 암장(暗葬)이라고도 한다.

70) 鎮壇具는 건물 축조 시에 건물의 안전과 영속을 위해 지신에게 발원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토지 전체에 대해 지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지진,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한 행위를 진단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崔恩娥, 「慶州地域 出土 鎮壇具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2.

71) 崔恩娥, 위의 논문, 2004.

복천박물관,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2006.

72) 鎮壇具에서도 동물의 뼈가 봉납된 예가 있다. 崔恩娥, 위의 논문, 2004.

73) 대한남골협회에 직접 문의하였다.

지름의 차이에서 달라지며, 藏骨器의 경우 원통형 합의 경우는 이를 적용시킬 수 있겠으나 동체부의 폭의 차이가 있는 藏骨器의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분쇄된 인골 대신하여 火葬한 遺骨과 비슷한 분말가루를 1.5ℓ~1.8ℓ을 담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와 관련된 藏骨器의 예를 살펴보면 專用 藏骨器로 사용되었던 藏骨器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藏骨器는 그 보다 크기가 작은 토기들도 있다.⁷⁴⁾ 크기가 작은 藏骨器로 추정되는 토기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 일부의 인골만 藏骨器에 담았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火葬 후 일부의 인골은 藏骨器에 담아 火葬墓에 일부는 다른 용기에 담아 다른 곳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는 지금 일본에서 행하는 火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火葬 후 일부는 藏骨器에 담아 자기가 속한 원찰에 일부는 다른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와서 모시는 경우가 있다.⁷⁵⁾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일본의 火葬 관습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火葬 후 藏骨器에 담은 遺骨이 성인의 것이 아니라 소아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三國遺事』 기사에서도 ‘死胎’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의 遺骨을 담은 藏骨器일 가능성이 있다.⁷⁶⁾ 어린 아이를 火葬을 했다면 遺骨의 양은 성인보다는 적으므로 遺骨을 담은 藏骨器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일부는 藏骨을 하고 일부는 散骨했을 경우인데, 이 역시도 藏骨과 散骨을 병행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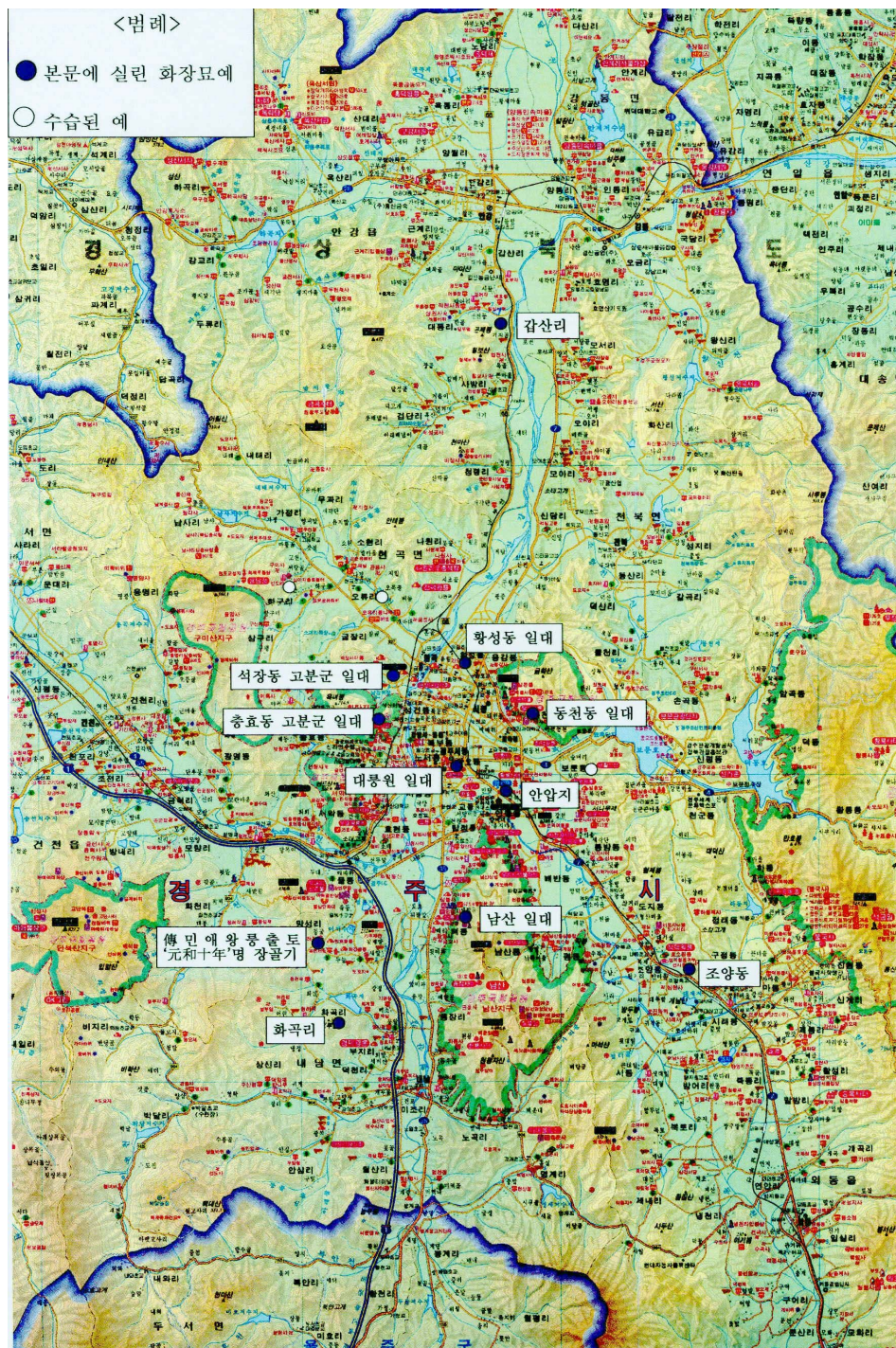
74) 이는 火葬후 인골을 수습하여 藏骨器에 모두 담을 경우이다.

75) 遺骨을 몇 군데로 분리하여 모시는 것이 일본의 관습이다. 遺骨의 하나는 자기가 소속되어진 원찰의 납골당에 모시고, 또 하나는 각 가문의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통상적이다.

김선기, 「日本の葬儀文化研究 -韓·日比較を中心に-」,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經營·地域學大學院, 2003.

76) 물론 火葬한 이유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부모보다 일찍 죽는 어린 자식들의 경우 火葬을 하였다.

이러한 4가지의 방법만으로 火葬墓를 구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나 새로운 자료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지도 1.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 火葬墓 分布圖

Ⅲ.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의 특징

1. 火葬墓의 分布와 立地

이 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火葬墓 사례를 통하여 慶州地域에서 火葬墓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火葬墓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지의 구릉지대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분포를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지도 1)

- 경주시내 일원- 안압지,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 금강산지구- 동천동 火葬墓, 망형 사리함, 표암
- 남산지구-배동을 중심으로 한 남산 일대
- 화랑지구-충효동, 석장동
- 내남면 일대-화곡리, 傳민애왕릉, 부지리
- 현곡면 일대-나원리, 하구리,
- 기타- 황성동, 갑산리, 조양동, 아화,

위의 慶州地域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의 분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이 횡혈식석실분이 군집해 있는 곳에 대부분이 위치하거나 傳왕릉 입지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平地와 山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평지에 조성된 예로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안압지, 황성동 석실분 가이에 해당한다.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의 경우는 적석목곽묘의 봉토에 별다른 시설 없이 수혈 안에서 藏骨器로 추정되는 유개함이 발견되고 있다. 안압지의 경우는 정확한 출토양상은 알 수 없고 연못 안에서 확인된 연결고리유개함의 경우는 藏骨器 외용기로 보이며,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의 경우는 석실분 호석 주변에서 매납 용기 형태이다.<표 2>

평지에서 확인된 火葬墓 외에 대부분은 산지인 구릉지대에 입지하고 있는데, 횡혈식석실분의 입지와 거의 같은 곳에서 火葬墓가 확인되는 점에서 火葬墓의 장지 역시 횡혈식석실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표 2. 평지 火葬墓의 예

유적명	유구	위치	입지	구조	유물		인골 유무
					외용기	내용기	
황성동 火葬墓	土壙	황성동 545번지	평지	수혈형		陶質甕 1점	
황남대총 북분 봉토 출토	火葬墓	황남동 미추왕릉 지구 내	평지	수혈형		유개함	
천마총 봉토 출 토	火葬墓	황남동 미추왕릉 지구 내	평지	수혈형		과수부호 2점 철편 2점	
안압지	火葬墓	안압지 연못內	평지	수혈형		연결고리유개호 2점(骨壺3)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2호 매납유물	추정 火葬墓	황성동	평지	수혈형		유개호 1점 (보주형蓋+ 壺)	

특히 석장동의 경우는 황혈식석실분이 군집을 이루는 곳에서 火葬墓가 확인되고 있다. 적석목곽묘와 달리 황혈식석실분의 경우는 석장동과 충효동 등의 경우처럼 군집을 이루는데, 이는 동일 가계의 고분군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⁷⁷⁾, 이러한 군집군 속에서 火葬墓가 황혈식석실분과 같은 묘역에서 병존하고 있다면 동일 가계 속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傳민애왕릉에서 확인된 ‘元和十年’銘의 藏骨器의 예처럼 왕릉의 부근에서도 火葬墓가 조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단독으로 조영된 것으로 보이는 火葬墓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慶州地域에 있어서 발굴 조사된 火葬墓와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77) 고분군의 묘역은 혈통이나 가계에 따라 조영된다는 견해가 있다.
최병현,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1991, p.470

표 3. 산지 火葬墓의 예

유구(물)명	유구	위치	입지	구조	유물		인골 유부
					외용기	내용기	
동천동 火葬墓	火葬墓	동천동 산 13번지	산지	석곽형		유개함1점, 유개고배5점	
석장동 火葬墓	火葬墓	동국대 학생회관 신축부지	산지	수혈형	단경호1점 外호개 1점	청자완 1점, 장경호 1점	
석장동 유적 5호 火葬墓	火葬墓	동국대 자연과학관 배수로부지	산지	수혈형		兩耳附壺 1점, 無紋埴 1점	
석장동Ⅳ 51호	火葬墓	동국대 학생복지관 부지	산지	수혈형		유개파수부호 1점	
석장동Ⅳ 61호		상동		석곽형		유개인화문호 1점	인골 검출
석장동Ⅳ 62호		상동		석곽형			
석장동Ⅳ 68호		상동		석곽형		대형완1점, 대호편 1점	
석장동Ⅳ 73호		상동		석곽형			인골 검출
동천동	사리함	동천동 약산	산지	석함형	방형석제 함 1점	청동방형사리함 1점	
경주 이씨 誕降址	火葬墓	소금강산 남동쪽 구릉	산지	자연 암반형		인화문 우각형파수부호 1점	
충효동 고분군 6호분	火葬墓	충효동	산지	석실형		유개함4점, 초자구옥 1점, 유리 소옥 3점, 장방형 은판 1점	

남산-板石四壁의 方形火葬墓	火葬墓 1기	남산	산지	석곽형		유개합 1점	
조양동	火葬墓 1기	조양동	산지	석함형	석함 1점	당삼채삼족복 1점	인골 검출
내남면 화곡리	火葬墓 1기	내남면 화곡리 1리 산 24번지	산지	석함형	석함 1점	유개연결고리호 1점 도제 十二支像	인골 검출
충효동고분군-구릉지대지하 소형수혈火葬墓	火葬墓	충효동	산지	수혈형		유개합, 파수부호 외 다수	
충효동 고분군 3호분	火葬墓	상동	산지	수혈형		광구편주호 1점	
경주 傳민애왕릉	火葬墓 1기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산지	수혈형		‘元和十年’銘 유개연결고리호 1점	
갑산리 유적 火葬墓	火葬墓	갑산리	산지	수혈형		유개합 1점	

살펴보면 적석목곽묘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묘제가 변화하면서 그 입지가 평지에서 산지로 바뀌어간다. 즉 火葬墓의 입지와 분포는 횡혈식석실분, 傳왕릉들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횡혈식석실분이 군집을 이루는 묘역에서 火葬墓가 확인될 때, 이는 같은 가계의 집단묘를 이루는 구성원의 무덤으로 생각되는데 이 같은 火葬墓의 피장자는 횡혈식석실분의 피장자와 같이 당시 상위 계층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피장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금 살펴보려고 한다.

火葬墓는 藏骨處로서 실제로 火葬을 하였던 火葬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火葬墓에 대한 조사와 많은 수의 藏骨器가 확인되고 있으나 火葬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문무왕은 고문 뜰, 효성왕은 법류사 남쪽, 원성왕은 봉덕사 남쪽, 효공왕은 사자사 북쪽, 경명왕은 황복사 등의 火葬處라고 생각되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확인된 火葬處에 대해서는 문무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능지탑 이외에는 없다.

火葬을 위해서는 시신을 태울 수 있는 火葬處는 반드시 필요하다. 火葬處가

있었다면 그 위치는 과연 어디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문헌자료에서 확인하였듯이 사찰 부근에서 火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곽에 이러한 火葬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火葬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천에서 했을 경우와 오늘날의 火葬場과 같은 전용 火葬處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문무왕릉비판에서 장작을 쌓아 火葬을 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2001년 조사된 석장동 61호, 73호에서 확인된 인골의 분석 결과에서 인골 표면이 푸른 회청색을 띠며 파열선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산화염이 아닌 1200℃이상의 환원염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에 가마와 같이 높은 온도의 열을 낼 수 있는 火葬處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⁷⁸⁾ 여기에서 말하는 火葬시설이라는 것이 火葬을 위한 전용 시설이었는지 아니면 가마시설을 빌려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환원염으로 火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노천의 경우와 火葬을 위한 전용시설이 모두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火葬處의 차이는 시기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천에서 火葬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火葬을 하기 위한 전용의 火葬處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현재까지 火葬處와 같은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기대한다.

2. 火葬墓 構造 분류와 構成

1) 火葬墓 構造 분류

현재까지 統一新羅 火葬墓의 구조에 대해서 鄭吉子, 홍보식, 김호상에 의해서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78) 김호상·김재현, 앞의 논문, 2005, pp.306~307.

◎ 鄭吉子⁷⁹⁾

- 해중암릉 火葬墓: 대왕암
- 횡혈식석실분 火葬墓: 충효리 6호분, 傳新덕왕릉
- 판석사벽 방형 火葬墓: 남산
- 석함을 토광에 매장하는 경우: 조양동, 화곡리
- 구릉지대 지하 소형 수혈 火葬墓: 충효동, 남산 일대
- 고분 봉토 내에 藏骨器 매장하는 경우: 충효리 3호분, 傳민애왕릉, 황남대총 북분, 천마총
- 평지 소형 수혈 火葬墓: 안압지
- 고분군 내 火葬墓: 울주 화산리 고분군
- 불상대좌주변 소형수혈 火葬墓: 산청 내원사 보선암 비로자나불석조대좌 永泰 2년(766)명 사리호

◎ 洪潛植⁸⁰⁾

- ┌ 석관 안에 藏骨器 안치(IA)
- 이중형(I) ┆석함 안에 藏骨器 안치(IB)
- └ 토기 안에 藏骨器 안치(IC)
- 단일형(II) ┌ 토기형(IIA)
- └ 석관형(IIB)

◎ 金鎬詳⁸¹⁾

- 石槨形의 외부구조물을 갖추고 그 내부에 골장용기를 매납한 예
- 橫穴式石室墳 내 埋納한 골장용기의 예
- 石函을 土壙에 埋葬한 예
- 丘陵地帶 地下小形堅穴 火葬墓에 藏骨器를 안치한 예
- 古墳 봉토 내에 藏骨器를 埋葬한 예
- 平地小形堅穴에 火葬墓를 안치한 예
- 암벽을 굴착하고 조성한 예

위의 3가지의 분류안을 살펴보면, 金鎬詳은 鄭吉子の 분류를 받아들이면서

79) 鄭吉子, 앞의 논문,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80) 洪潛植, 「統一新羅의 장묘제」, 『統一新羅 고고학-제28회 한국고고학대회』 2004.

81) 김호상 외, 앞의 논문, 2005.

석장동 유적 출토된 火葬墓의 새로운 구조를 포함시켜 다시 정리를 하였다. 洪潛植은 시설물의 차이에서 이중형과 단일형으로 나누었다. 이중형은 외용기의 재질과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다시 나누고, 단일형은 遺骨을 담는 용기나 석관으로 구분하였다.

鄭吉子와 金鎬詳의 분류안의 경우는 세부화된 분류로 인하여 공통적인 구조적인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와 구조를 포함시켜 봄으로써 구조 분류가 다소 복잡해 보인다. 오히려 洪潛植의 분류안이 火葬墓의 공통적인 속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음에서는 홍보식의 분류안을 일부 수정해서 분류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일형(I) - 토기형 (IA)

┌ 석곽 안에 藏骨器⁸²⁾ 안치(IIA)

이중형(II) └ 토기 안에 토기 안치(IIB)

└ 석함 안에 藏骨器 안치(IIIC)

이 분류안에서는 크게 보면, 홍보식의 분류안과 차이는 없어 보이나 큰 틀인 단일형을 (I)로 이중형은 (II)으로 보았다. 이는 홍보식의 경우는 가장 이른 시기의 火葬墓를 동천동으로 보았으나 앞서 살펴 본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火葬墓의 초기 구조의 시작이 석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수혈에 藏骨器를 매납한 구조가 먼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중형 IIA의 석관을 석곽으로 바꾼 것은 藏骨器 자체가 遺骨을 담는 하나의 관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석관과 유사하더라도 火葬墓에 있어서는 藏骨器를 보호하는 관의 용도이기 때문에 석곽으로 분류하였다.⁸³⁾

그리고 홍보식이 구분한 석관형(IIIC)의 구조는 수혈을 파서 석곽 또는 석함에 遺骨을 매납하는 방법으로 慶州地域에서 확인되지 않는다.⁸⁴⁾ 2001년에 조

82) 藏骨器로서의 목함의 존재는 그 예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석장동 73호에서 인골과 함께 목재 일부가 확인되었다고 한다.(김호상·김재현, 앞의 논문, 2005.) 지금까지 (小形)堅穴 火葬墓와 관련하여 이들도 木槨또는 목함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83) 棺은 시체를 직접 넣은 것을 말하며, 槨은 시체를 이중으로 담을 때 겉의 것은 槨이고 안의 것은 棺이라 한다. 室은 내부 공간을 중시하므로 시상대나 관대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棺, 槨, 室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金昌鎬, 앞의 논문, 2003, p.11.

사된 73호 火葬墓의 경우 이 구조로 볼 수 있겠으나 보고자에 따르면 인골에 목재의 흔적이 확인되어 목함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⁸⁵⁾ 특히 석곽의 경우, 火葬한 후 遺骨을 藏骨處에 가져와서 석곽에다 다시 遺骨만을 담았을 때는 그 번거움에 遺骨을 보호하려고 藏骨器를 이용한 점에서 본다면 목함이나 遺骨을 담는 용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일형의 석관형 구조를 제외시켰다.

2) 火葬墓 構造에 따른 構成

앞서 살펴 본 火葬墓의 構造 분류안과 각각의 구조에 있어서 藏骨器의 構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統一新羅時代의 火葬墓에서 藏骨器는 토기가 대부분이다. 내외용기가 서로 유리되는 등 정확한 구성자료가 많지 않으나 대체로 단일용기와 이중용기가 확인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火葬墓의 藏骨器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藏骨器 일부를 함께 검토하여 藏骨器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 I A (그림 29)

이 구조는 火葬墓는 대부분이 수혈을 이용한 형태이다.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에 있어서 遺骨을 단일 용기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8세기 이전에 藏骨器의 기형은 생활용 토기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예로 황남대총, 황성동, 충효동, 갑산리 등에서 확인되는 藏骨器는 단일 용기로 대부분이 유개함을 사용하였다. 문양에 있어서도 삼각집선문과 반원점문 등의 초기의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입지는 평지에서 산지 양쪽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토기의 문양을 통해 봤을 때 6세기 후반경⁸⁶⁾에서 9세기 초인

84) 석장동 73호의 경우 이 구조로 볼 수 있겠으나 보고자에 따르면 인골과 함께 목함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어 이중형(II)으로 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앞의 보고서, 2004.

85) 일본에서도 동시기의 火葬墓에서도 목함이 사용된 예가 다수 확인된다.(吉澤悟, 「火葬墓の出現と広がり」, 『千葉縣の歴史 資料編考古4』, 2003.)

86) 충효동 6호분의 출토의 유개함의 문양은 6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宮川禎一, 『日本の美術 4』 第407号

815년의 傳민애왕릉 출토 ‘元和 10年’명의 藏骨器까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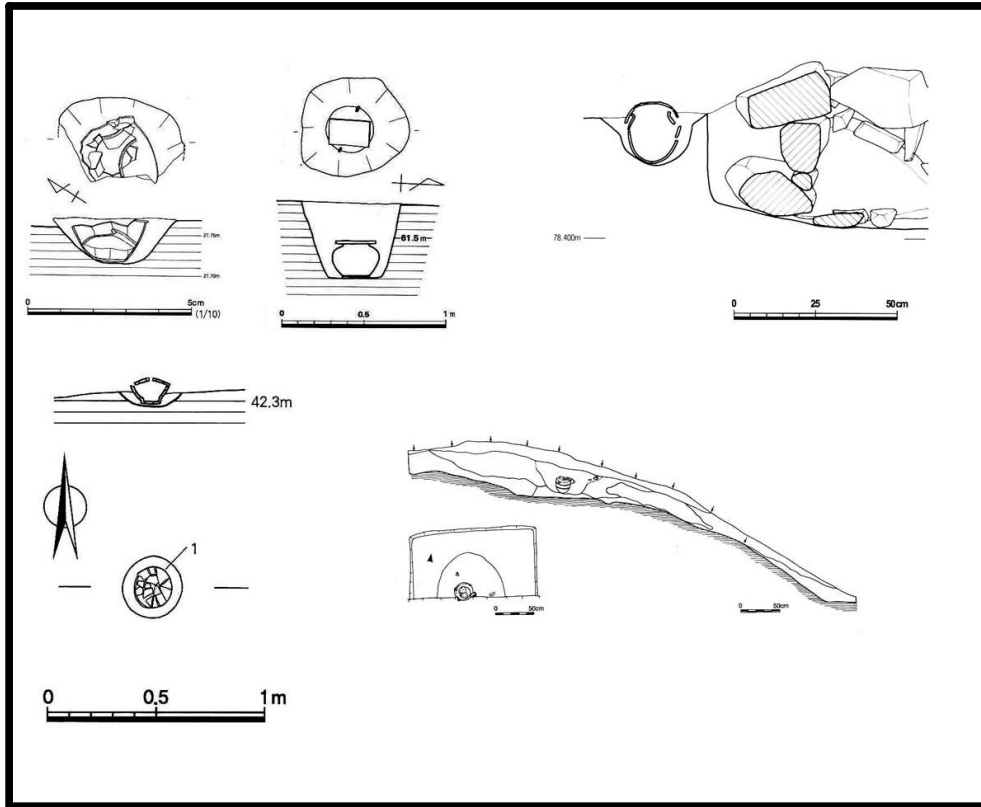


그림 29. 火葬墓 I A 유형

(①황성동 23호, ②석장동 5호, ③석장동 52호, ④갑산리 5호, ⑤傳민애왕릉)

● II A (그림 30)

이 구조는 수혈을 파서 석곽을 만들어 藏骨器를 매납하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2001년에 조사된 석장동 火葬墓 4기(61호, 62호, 68호, 73호87)), 동천동 火葬墓, 남산 등이 해당된다.

이 중에 특이한 구성으로 동천동 火葬墓의 藏骨器를 들 수 있는데, 藏骨器

陶質土器と須恵器, 凸版印刷株式會社, 2000.

87) 석장동 73호는 藏骨器로 목함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구조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 세부적인 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1점 주위로 5점의 유개고배를 사용한 예가 있으며, 유개고배의 경우는 부장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석곽 안에 藏骨器만을 매납하는 방식이다. 시기적으로는 동천동 火葬墓가 6세기 말경이나 7세기 초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를 시작으로 8세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세기경의 火葬墓에서는 이러한 예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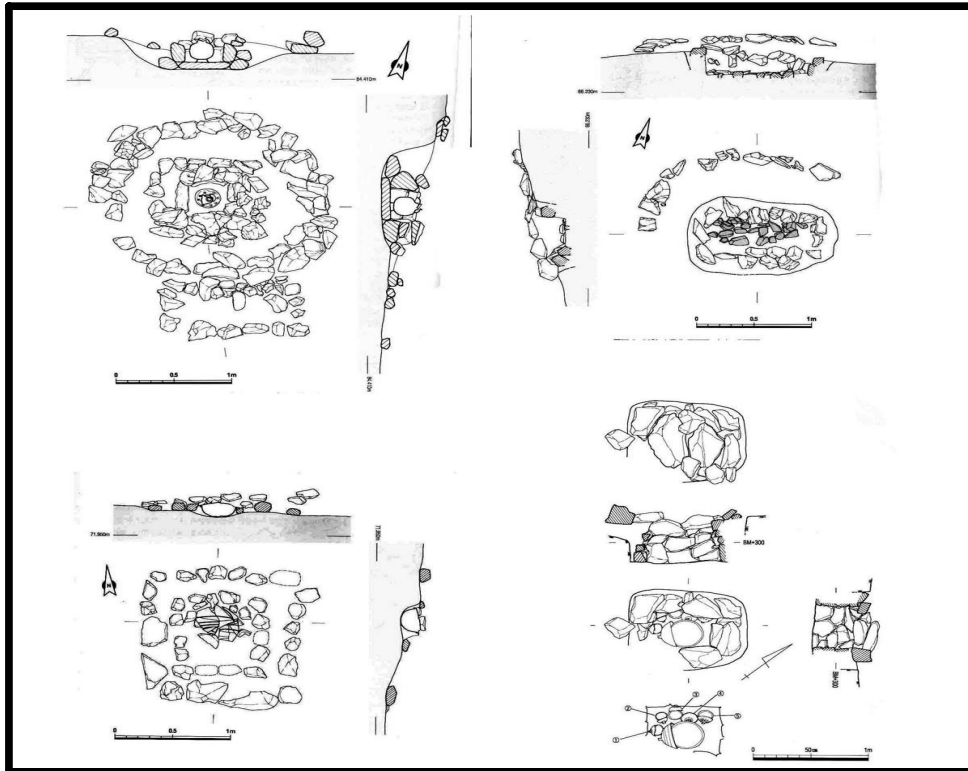


그림 30. 火葬墓 II A 유형

(①석장동 61호 火葬墓, ②석장동 62호 火葬墓, ③석장동 68호 火葬墓, ④동천동 火葬墓)

● II B (그림 31)

이 구조는 IA와 같이 수혈에 遺骨을 담은 내용기를 외용기 속에 넣는 火葬墓의 조영한 구조로 藏骨器의 구성은 내외용기 모두 토기를 이용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예로는 석장동 학생회관 부지에서 확인된 藏骨器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藏骨器들 중에 이중용기의 藏骨器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남산 배동 출토 藏骨器와 경주 출토로 알려진 藏骨器들이 있으며, 정확한 출토지는 모르나 경주에서 발견되었다는 藏骨器들 중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특이한 형태로 남산 삼릉계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진 일괄 유물과 경주 출토로 알려진 일괄 유물의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외 용기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합들이 같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2중의 藏骨器는 8세기가 들어서면서 火葬墓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며 전용 藏骨器가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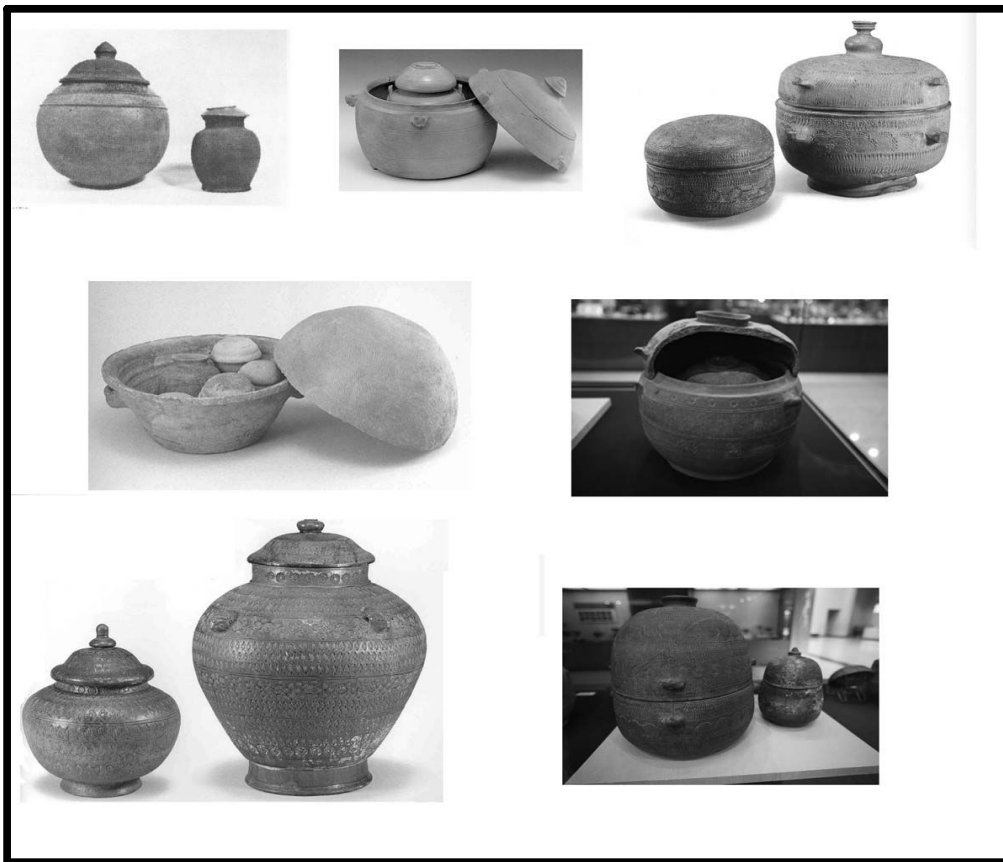


그림 31. 火葬墓 II B 유형

(①석장동(경박소장), ②배동 삼릉계(경박소장), ③중박 소장, ④배동 삼릉계(경박소장), ⑤ 중박 소장, ⑥남산 출토 藏骨器(경박 소장), ⑦경박 소장(보존회98))

● II C (그림 32)

이 구조는 석함과 藏骨器를 이용한 이중형으로 외용기로 석함을 사용하여 내용기를 보호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예로 8세기경으로 보이는 조양동의 경우는 탑신형의 석함을 사용하다가 9세기 초 화곡리에서 火葬墓는 卵形의 석함을 사용하게 된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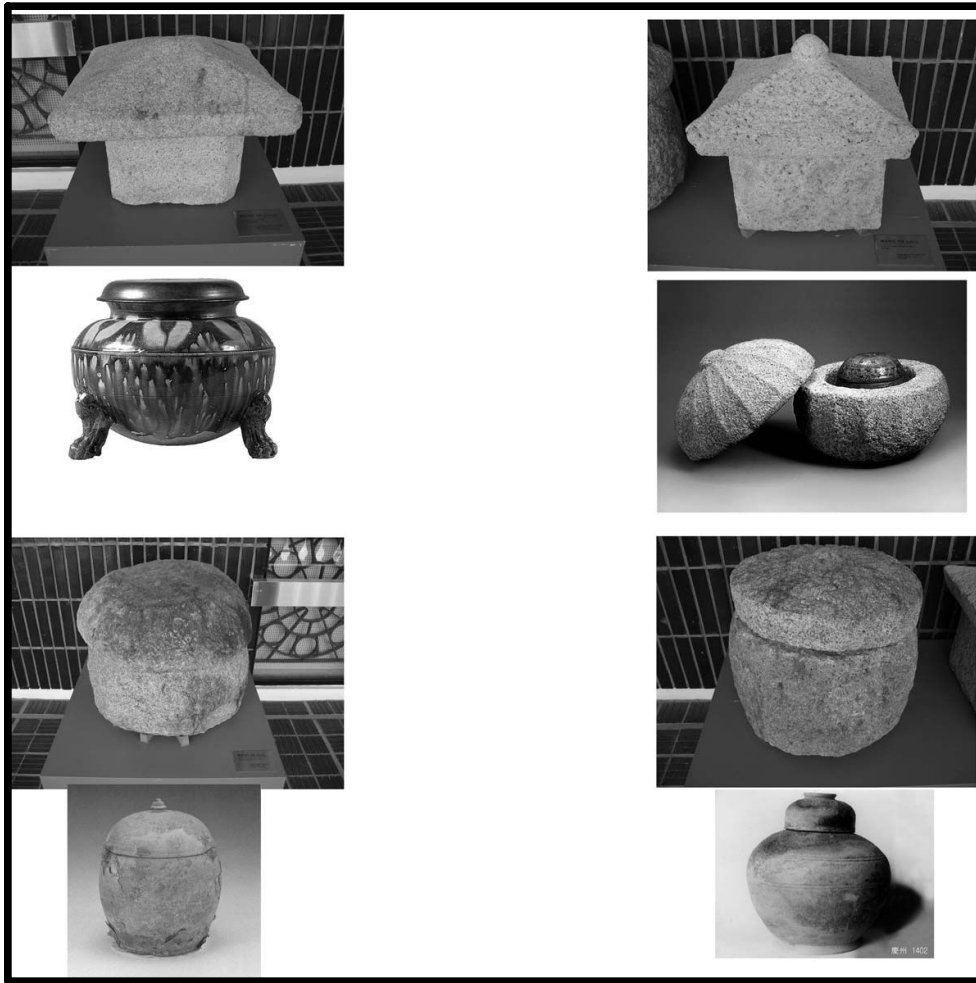


그림 31. 火葬墓 II C 유형

(①조양동 출토 석함과 당삼채복, ②경박소장(출토지 미상), ③傳경주 출토 석함과 鉛釉藏骨器, ④화곡리 출토 석함과 藏骨器, ⑤傳오류리 출토 석함과 藏骨器)

88) 최근 얼마 전까지 국립경주박물관 고고관 회랑에 4점의 석함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1점은 고고관 신라II실에 1점이 전시되고 나머지는 현재는 수장고에 격납되어 있다.

8세기의 석함의 경우 조양동의 예를 보면 석함의 제작에 있어서도 매우 정성을 들여 제작하였으나 9세기로 가면서 점차 석함의 외형을 거칠게 다듬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화곡리의 출토에서 보았을 때 수혈 속에 卵形의 석함을 묻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석함을 정연하게 제작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석함이 시간차와 火葬墓 조영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 4가지의 火葬墓 구조를 통해 앞서 본 慶州地域의 火葬墓를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 火葬墓 구조 분류

연번	유적	단일형(I)	이중형(II)		
		IA	IIA	IIB	IIC
1	충효동 고분군 6호분	0			
2	충효동 고분군 3호 석실분	0			
3	충효동고분군-구릉지대	0			
4	남산-板石四壁의 方形火葬墓		0		
5	경주 이씨 誕降址				
6	동천동 출토 청동 방형 사리합				0
7	조양동 火葬墓				0
8	천마총 봉토 출토	0			
9	황남대총 북분 봉토 출토	0			
10	안압지 건물지 출토	0			
11	傳민애왕릉	0			
12	석장동 火葬墓			0	
13	동천동 火葬墓		0		
14	내남면 화곡리				0
15	석장동 유적 5호 火葬墓	0			
16	경주 황성동 23호 토광	0			
17-1	석장동 유적IV- 51호	0			
17-2	석장동 유적IV- 61호		0		
17-3	석장동 유적IV- 62호		0		
17-4	석장동 유적IV- 68호		0		
17-5	석장동 유적IV- 73호		0		
18	갑산리 火葬墓	0			
19	황성동석실분 906-5번지	0			

위의 <표 4>를 통해 보면 I A의 구조가 가장 많이 확인되며, II A가 석장동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II B의 구조는 1984년에 확인된 석장동 예외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중형의 藏骨器들을 통해서 이 火葬墓의 구조 역시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II C의 구조는 예는 조양동, 화곡리, 동천동 청동사리합이 수습된 석함과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오류리의 석함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토대로 그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⁸⁹⁾

표 5 . 火葬墓 유형별 시기

구분	단일형(I)	이중형(II)		
	I A	II A	II B	II C
7세기				
8세기				
9세기 초				

위의 표를 보면, I A와 II A가 이르면 6세기 말에서 늦어도 7세기의 火葬墓의 구조로 보이며, 8세기에 이르러서 물론 세부적인 시간차가 보이지만 4가지의 火葬墓의 구조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I A, II B, II C의 火葬墓 구조가 일부 확인되지만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9세기 초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II A의 火葬墓의 구조는 9세기대에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석곽형인 II A에서 점차 석함형인 II C로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그 예가 적어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표 5>에서도 확인되었듯이 8세기에는 火葬墓의 다양한 구조뿐만 아니라 藏骨器의 수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시기로 이는 統一新羅時代 慶州地域에서 火葬이 유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9) 火葬墓 구조를 통하여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藏骨器의 문양을 宮川楨一의 인화문 토기의 편년안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宮川楨一, 「陶質土器と須恵器」, 『日本の美術 4』, 2000.

-----, 「新羅陶質土器 研究の一視点-7世紀を中心として」, 『古代文化』 卷40卷 第6號, 1988.

-----, 「新羅連結把手付骨壺の變遷」, 『古文化談叢』 第20集, 九州古文化研究會, 1989.

-----, 「新羅印花紋土器變遷の劃期」, 『古文化談叢』 第30集, 1993.

-----, 「新羅印花紋土器の 文様分析-慶州雁鴨池出土土器の檢討」, 『朝鮮古代研究』 第2號, 2000.

IV.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의 諸문제

1. 火葬墓의 조성배경

統一新羅時代 火葬은 불교로 인한 새로운 장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요인은 정치·제도적인 것에서부터 불교 내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수용양상에 있어서도 중층적·복합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⁹⁰⁾

신라의 불교 공인은 법흥왕 14년(527)으로 동천동 火葬墓를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의 것으로 본다면 불교공인에서 火葬墓 조영까지의 기간은 불과 몇 십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7세기부터 火葬이 유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교공인 후 약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는 보수적인 장제에서 불교식 火葬이 수용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⁹¹⁾

統一新羅 초기의 火葬墓는 교종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불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약간의 언급해 보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統一新羅時代 선종의 승려들이 火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석문 자료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統一新羅時代에 慶州地域에서 나타나는 火葬墓는 불교의 공통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어느 종파에 의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불교의 공통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러 종파 승려들의 장법에서 火葬한 사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의 승려의 火葬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종파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종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⁹²⁾

90) 구미래, 「불교전래에 따른 火葬의 수용양상과 변화 요인」,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회편, 집문당, 2002.

91) 森本徹, 앞의 논문, 2000.

92) 金昌鎬, 「新羅 密敎사원 四天王寺의 역사적 위치」, 『密敎學報』第 3輯, 威德大學校 密敎文化研究院, 2001, p.88. 각주 4) 표를 재인용

표 6. 統一新羅時代 불교

新羅		高麗
中古	中代·下代	
中觀派 密敎	密敎 法相宗 華嚴宗 禪宗	瑜伽宗 華嚴經 曹溪宗 天台宗 群小佛敎
불교 도입소화기	과도기(학과불교)	종파불교

위의 <표 6>를 통해서 본다면 統一新羅時代에는 密敎, 法相宗, 華嚴宗, 禪宗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火葬과 관련하여 밀접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密敎가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문무왕의 火葬과 관련하여 당시 불교를 생각해 보면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띤 밀교사찰인 사천왕사가 창건된 점, 문무왕릉 비편이 사천왕사 근처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통해서 본다면 문무왕의 火葬은 밀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華嚴宗의 경우는 의상에 의해서 전래되어 화엄 10찰이 세워졌으나 당시 서울이던 경주에는 이르지 않고, 8세기에 80화엄경이 도입되면서 9세기에 이르러서야 경주에 화엄종이 들어오지 않은 점⁹³⁾에서 慶州地域에서 조영된 火葬墓와는 관련성이 적을 것 같다.

禪宗의 경우는 앞서 승탑과 관련해서 언급하였듯이 승려들이 火葬이 아닌 매장을 한 점에 본다면 선종과의 연관성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法相宗은 唯識思想과 彌勒信仰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었다. 법상종의 교의가 되는 유식사상은 中觀派와 함께 인도 대승불교의 2대 학파를 이루는 瑜伽行派의 敎學으로 중국에서는 玄奘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統一新羅에 있어서는 현장의 제자였던 圓測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그 제자들에 의해 유식학 연구가 시작되었다가 順憬·太賢 등에 의해 종파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에서 8세기대에 법상종이 유행하므로 火葬과의 연관성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93) 金昌鎬, 앞의 논문, 2001, p.89.

이상 4가지의 종파와 火葬과의 연관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統一新羅時代의 불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火葬에 있어서 불교 이외의 다른 영향은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문무왕의 火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헌기록에 나와 있듯이 유언에서 서구식의 장법이라고 한 것에서 불교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무왕의 유언 속에서 자신의 묘를 조영하는데 있어 통일전쟁을 성공한 왕으로써 그의 능을 조영하는데 있어서 더욱 화려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더욱 검소함을 당부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된다.

“國人이 함부로 財貨와 田地를 佛寺에 寄施함을 금하게 하였다.”⁹⁴⁾

이 금지령은 문무왕 4년에 내려진 것으로 불교와 관련된 법령으로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는 통일전쟁이 진행 중인 현실에서 도피적으로 국민이 함부로 사찰에 재물과 토지를 시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稅와 役을 담당하는 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⁹⁵⁾ 이는 문무왕이 모든 사회적 물질 자원을 통일전쟁을 위해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적석목곽분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묘제 변화에서 1인당 장례비가 1/10에서 1/100로 줄어들게 되며⁹⁶⁾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통일전쟁으로 인한 모든 재화의 투입으로 묘제에도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당시의 정치적·경제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신라의 모든 재화가 투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통일 이후 다시금 사회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문무왕은 자신이 무덤에 투입되는 재화를 검소하게 하라는 유언을 통해서 스스로가 모범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

94) <三國史記> 卷6 文武王 4年條

95) 金福順, 「文武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第 16輯,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1999.

96) 장례에 있어서 절약이 조상숭배 중심의 제의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창호, 앞의 논문, 2003, p.17

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문무왕의 당시 정치·경제 사항이 고려되어 불교식의 火葬을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火葬墓의 피장자에 대한 문제

統一新羅時代에 火葬墓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왕 또는 승려의 묘제로 채용되었으며 당시 모든 계층에서 성행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앞서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사료와 금석문에서 왕과 승려의 火葬에 대한 기록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당시에 장례와 관련된 기록을 남길 만한 인물이라면 극히 일부 상위 지배 계층일 것이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로 火葬墓의 피장자를 추정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다. 현재까지 대부분 火葬墓 연구자들은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의 피장자에 대해서 문헌기록에서 8명의 왕이 火葬한 예가 확인되고, 더욱이 다수의 藏骨器가 출토되는 것을 통해서 왕에서 서민층까지 폭 넓은 계층에서 火葬墓를 조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火葬墓의 立地와 分布, 그리고 藏骨器의 構成을 통해서 火葬墓의 피장자를 짐작해 보고자 한다.

첫째, 火葬墓의 분포와 입지를 살펴보았을 때, 당시의 墳墓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도 계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석장동의 예처럼 횡혈식석실분이 군집을 이루는 고분군 내에 火葬墓가 위치하는 경우는 그곳에 횡혈식석실분을 조영한 집단내의 구성원으로서 당시 상위 계층의 인물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묘제의 봉토에서 확인된 藏骨器의 경우는 그 무덤과의 연관성 보다는 偷葬으로 해석되므로 상위 계층이 아닌 그 보다는 하위 계층의 火葬墓로 생각된다.⁹⁷⁾

둘째, 火葬墓의 구조에 있어서도 계층차를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火

97) 이를 서민의 火葬墓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서민의 火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투장되어진 무덤의 피장자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투장의 의미로서 본다면 봉분이 조영된 피장자보다 하위계층으로 보인다.

火葬墓의 구조에서 同시기의 火葬墓의 구조 간의 차이를 계층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7세기대의 火葬墓 구조는 IA와 IIA가 확인되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조영된 火葬墓라고 한다면, 火葬墓의 구조에 있어서 수혈에 藏骨器를 넣은 IA와 석곽에 藏骨器를 넣은 IIA의 구조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火葬墓 구조의 차이는 IA와 IIA의 피장자의 계층의 차이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藏骨器 구성에서도 피장자 계층을 짐작할 수 있다. 조양동, 석장동, 남산 배동에서 확인된 중국제 도자기를 사용한 예에서는 이 같은 문물을 입수할 수 있는 계층의 피장자를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녹유로 된 藏骨器의 역시 같은 양상일 것이다. 즉 그 당시 특정한 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당삼채 도자기, 중국제 청자, 녹유호를 사용한 점에서 진골 이상의 계층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火葬墓와 관련되어 부장품이 매납된 사례인 화곡리 火葬墓의 경우는 藏骨器로 사용된 연결고리유개호 주변에 도제 十二支상이 매납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왕릉의 호석에 十二支를 배치하는 점에서 피장자를 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김해 진례면에서 수습되어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전시 중인 十二支像刻家形石函에도 十二支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왕릉에만 十二支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골이상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98) 국립경주 박물관에 소장 중인 藏骨器 중 ‘十二支’명의 藏骨器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피장자 계층으로 볼 수 있다.99)

다섯째, 이외에도 피장자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火葬의 절차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물론 火葬의 절차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火葬의 장례 절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시신을 火葬處로 옮길 때 필요한 장구와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가 필

98) 김해 진례면에서 수습되어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 중인 十二支像刻家形石函을 9세기~10세기초 統一新羅하대로 설정하고, 이 석함의 주인공은 신라말 金官京 관리이거나 가야계 新金氏왕족인 金仁匡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金英夏, 「金海進禮出土의 十二支像이 새겨진 石棺」 『古文化』 31, 1987, pp.3~12.

99) 일본에서는 火葬墓의 피장자를 율령체제에서의 귀족이나 귀족출신의 승려가 그 대상으로 율령체제에 부합되는 인물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森本徹, 앞의 논문, 2000.

요할 것이고, 火葬이 끝난 후의 遺骨을 담기 위한 藏骨器가 필요하게 된다.¹⁰⁰⁾ 특히 藏骨은 藏骨器를 더욱 정성을 들여서 제작해 遺骨을 담아 藏骨處에 묻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봉분까지 조영했을 것이다.¹⁰¹⁾

이러한 火葬의 절차를 보면 우선 火葬을 할 수 있는 나무 즉 火木이 필요하다. 노천에서 火葬할 경우 2~3일 동안 계속하여 화목이 필요할 것이다.¹⁰²⁾ 그렇다면 이 화목을 보유할 수 있는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¹⁰³⁾ 이는 火葬처가 노천이 아니라 가마와 같은 시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또한 火葬 후 遺骨을 담는 藏骨器를 보면, 8세기대에 전용 藏骨器는 대량 생산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주문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藏骨器의 기형에 있어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주문 생산을 하는 전용 藏骨器의 경우도 이를 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재력이 있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火葬墓에 있어서 봉분을 조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로 2001년에 조사된 석장동의 火葬墓 중 호석이 확인되는 예가 확인되고 있으며, 제단시설로 추정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봉분이 조영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⁰⁴⁾ 이는 앞서 말한 투장과는 달리 火葬墓 자체의 묘역을 가지고 봉분이 조영된 火葬墓의 피장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의 火葬墓의 피장자보다는 상위 계층일 것이다. 왜냐하면 火葬墓 자체의 묘역에다 봉분까지 조영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조상숭배를 위하여 봉분을 조영하고 제단시설과 같은 시설을 갖추 수 있는 계층은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가능하였을 것

100) 藏骨의 경우는 관의 역할로서 매장되거나 석곽에 안에 안치되었을 것이고, 散骨의 경우도 遺骨을 수습하여 散骨처로 이동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1) 물론 봉분을 다 조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다른 무덤의 봉분에서 偷葬으로 생각되는 예가 그렇다. 하지만 2001년에 조사된 석장동의 경우에서 호석이 확인되는 예에서는 봉분이 조영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102) 오늘날의 승려들의 다비식은 노천에서 행해지며 완전한 육탈까지는 2~3일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보았다.

103) 오늘날의 인도 갠지스강에서 火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화목을 충분히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충분한 火木을 사용한 경우는 완전한 육탈을 이뤄져서 수장되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완전히 육탈되지 못 한 채로 水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04)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 보고서, 2004.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火葬墓를 조영하기 위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횡혈식석실분을 조영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자원에 못지않은 점에서 상위 계층에서 火葬墓를 조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투장의 경우는 상위 계층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火葬墓의 유력한 피장자로 생각되는 승려의 경우는 어떠한 양상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火葬을 주도한 것은 승려로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 본 統一新羅 이후의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승려의 장례가 대부분 火葬으로 치러졌으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統一新羅時代의 元曉·義湘 등 당대 高僧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려들이 火葬을 하지 않고 매장 또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였다.¹⁰⁵⁾

이에 대해서 소재구는 신라하대와 고려의 승탑을 연구에서 신라하대 17명 선사들의 가빈, 성탑, 건탑 장소, 입비년 등의 현황을 高僧들 입적연대순으로 현존하는 탑비를 통해 살펴 본 결과, 9세기 선종계열의 승탑인 정효대사 절충(826~900)를 제외하고 승탑의 비문에서 다비의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¹⁰⁶⁾ 즉 이처럼 다비를 하였다는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초기 승탑들은 매장을 기본으로 하여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짙음을 지적하였다.

승탑에 있어서도 신라와 고려전기의 禪僧들의 경우 이러한 예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統一新羅時代의 高僧조차도 火葬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당시의 禪門에서는 대부분의 高僧들이 입적한 후 매장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실이 탑비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¹⁰⁷⁾ 따라서 신라 및 고려전기의 승탑 중에서는 舍利孔이 없는 예가 많으며, 석관이나 석실을 갖춘 사례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¹⁰⁸⁾ 이는 승려들 역시 전통적인 매장관

105) 鄭吉子, 앞의 논문, 1986, pp. 160~163.

106) 蘇在龜 앞의 논문, 2001, p.37.

107) 蘇在龜, 위의 논문, 2001.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4.(초판 2쇄)

108) 옥룡사지, 보천사지 승탑 하부에서 석관시설이 확인되었다.

蘇在龜, 위의 논문, 2001.

엄기표, 위의 책, 학연문화사, 2004.(초판 2쇄)

습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 현재까지 확인된 火葬墓의 분포, 위치, 구조, 藏骨器 등을 통해서 피장자에 대해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火葬墓 피장자를 권력구조의 중심이었던 지배자 계층의 무덤으로 보인다.¹⁰⁹⁾ 이는 지금까지 統一新羅時代의 火葬이 불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승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과 다르다. 이는 최근의 승탑 연구를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散骨의 경우는 존재했을 것이나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9세기부터 고분이 조영되지 않는 이유를 火葬의 의한 散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밝힐 수 있는 기록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109) 권력의 수장에 따라서 묘제의 변이는 그 사회의 있어서 묘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火葬은 불교로 인한 새로운 장법으로 신라에 있어서는 불교를 수용한 三國時代末期에 발생하여 統一新羅에 점차 확산되어 간다. 이러한 변화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요인은 불교에서부터 정치·경제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기초한 본 글의 목적은 통일신라 시대의 묘제에 있어서 火葬墓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조성배경과 피장자에 대해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 성과와는 다른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火葬墓 구조 분류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피장자에 있어서는 왕을 비롯한 지배자 계층의 무덤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본 글의 맺음말은 각 장별로 정리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II장에서 문헌기록과 금석문 자료에서는 왕을 비롯한 승려 일부의 火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 경우를 통해 당시 火葬하게 된 이유를 추정하였으나 문헌자료와 금석문 자료만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慶州地域에서 統一新羅時代 火葬墓가 발굴조사 되거나 수습된 사례를 통해 좀 더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면서 火葬墓로 판단해 볼 수 있는 4가지의 조건으로 인골의 有無, 藏骨器의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 火葬墓의 구조를 통한 구분과 문제점, 藏骨器의 크기에 대해서 제시해 보았다.

III장에서 살펴 본 慶州地域에 있어서 火葬墓의 입지와 분포는 횡혈식석실분과 傳왕릉들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火葬墓의 구조에 있어서는 사례들을 통하여 4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그 분류는 크게는 단일형(I)과 이중형(II)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단일형에 토기형인 IA, 이중형에는 석곽 안에 토기 안치된 구조는 IIA, 토기 안에 토기 안치한 2중의 구조는 IIB, 석함 안에 토기 안치된 구조를 IIC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火葬墓의 구조는 시기적으로 IA와 IIA의 구조가 가장 이른 시기인 6세기 말이나 늦어도 7세기 초에 시작된다. 8세기에는 4가지 구조 모두가 확인되는데 이는 火葬墓가 당시 묘제에 있어서 유행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9세기에는 傳민애왕릉에서 확인된 火葬墓의 ‘元和十年(815)’銘 藏骨器처럼 9세기 초

에 극히 일부 확인되나 그 이후의 시기에는 9세기에 해당되는 火葬墓는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統一新羅時代 묘제에 있어서 9세기 초에 분묘가 사라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장 火葬墓의 조성배경에 있어서는 신라가 불교 공인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조영되는데 이는 보수적인 장제에서 불교식의 장법인 火葬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이해된다. 신라에 있어서 6세기 말~7세기 초부터 시작되는 火葬墓가 시작되며 이는 교종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불교의 영향 외에도 『三國史記』 문무왕 조를 통해서 당시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신라에 있어서 火葬墓를 채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火葬墓의 조성배경에는 불교적 영향에서부터 정치·경제적인 영향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火葬墓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문헌기록, 火葬墓의 입지와 분포, 藏骨器의 구성 등을 통하여 당시의 지배자 계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의 황혈식석실분의 입지와 분포에 있어서 유사하며 장골기의 구성에서 당시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었던 당삼채 도자기와 녹유토기 등을 사용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火葬이 불교의 영향이기 때문에 승려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는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승탑 연구에서도 統一新羅時代의 高僧조차도 火葬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보아 統一新羅時代의 火葬墓가 지배자 계층을 중심으로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統一新羅時代의 火葬墓에 대한 연구는 자료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慶州地域의 한정된 화장묘 자료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많은 억측과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현상 파악에 급급한 나머지 火葬墓가 담고 있는 의미, 火葬의 절차와 복원, 조성배경 등에 있어 충실히 다루지 못 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자료 증가와 함께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타 지역의 統一新羅時代 火葬墓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불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글이 統一新羅時代의 火葬墓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약간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 바랄 뿐이다.

<參考文獻>

1.史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2.報告書

경주이씨 中央花樹會 외, 『민주주의발상지 경주 표암 성역화사업 기본계획보고서』,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黃龍寺發掘調査報告書』, 1984.

-----, 『경주방내리고분군』, 1996.

-----, 『경주방내리고분군』, 1997.

-----, 『新羅王京發掘調査報告書』, 2001.

-----, 『경주 황성동 석실분 906-5번지』, 2005.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경주 황성동 석실분』, 1993.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동천동 수습조사 보고」, 『1994 年報』, 1995.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석장동유적』, 1996.

-----, 「동국대학교내 석장동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1.

-----, 『황성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2002.

-----, 『황성동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2002.

-----, 「교내 학생복지관부지유적 I」, 『석장동유적Ⅳ』, 2004.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974.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1978.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 발굴조사보고서, 1985.

부산대학교박물관, 『울주화산리고분군』, 1983.

有光敎一, 「慶州忠孝里石室古墳調査報告書」, 『昭和七年度古墳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7.

영남고고학회, 「용강동 고분군 발굴조사」, 『영남고고학』 9, 1991.

鄭良謨·李健茂·崔鍾圭, 「傳민애왕릉 주변정비 보고」, 경주박물관, 1984.

3.圖錄

고려대학교, 『토기류명품도록』, 1997.

-----, 『統一新羅』, 2003.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도록』, 1988.
 -----, 『한국의 토용』, 1989.
 -----, 『특별전-경주 남산』, 1995.
 -----, 『특별전-문자로 본 신라』, 2002.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유물도록』, 2003.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도록』, 199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統一新羅 · 고려 질그릇』, 1987.
 통도사정보박물관, 『佛舍利신앙과 그 莊嚴』 특별전도록10, 2000.
 복천박물관,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2006.

4.單行本

강경숙, 『한국도자사』, 일지사, 1989.
 -----,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강인구, 『百濟古墳研究』, 일지사, 1977.
 -----, 『三國時代墳丘墓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4.
 金元龍, 「統一新羅土器」, 『韓國史論』, 國史編纂委員會, 1985.
 -----,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1986
 -----, 『韓國考古學研究』, 일지사, 1987.
 -----,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제 2판)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춘추각, 1995.
 김용성, 『新羅 古冢과 地域集團-大邱 · 慶山의 例一』, 춘추각, 1998.
 김희경, 『사리구』, 대원사, 1998.(초판 4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8』-삼국의 문화, 19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9』-統一新羅, 1998.
 이기백 · 이기동 共著, 『한국사강좌 I -고대편』, 1982.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4.(초판 2쇄)
 월간문화재사, 「唐三彩三脚壺」, 『월간문화재』, 1973.
 윤용이, 『우리의 옛 질그릇』, 대원사, 1999.
 정영호, 『부도』, 대원사, 2003.(초판 9쇄)
 최병현, 『新羅古墳研究』, 일지사, 1991.
 한병삼, 「統一新羅土器」, 『韓國의 美』 5, 중앙일보사, 1981.

한국미술사학회,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许兴植, 『韩国金石全文』 中世上, 亚细亚文化社, 1984.
 韩国古代社会研究所 编, 『译注 韩国古代金石文』Ⅱ, 驾洛国史迹开发研究院, 1992.
 韩国古代社会研究所 编, 『译注 韩国古代金石文』Ⅲ, 驾洛国史迹开发研究院, 1992.
 芥藤忠, 『新罗文化论考』, 1973.(日本語)
 东潮・田中俊明, 『韩国の 古代遺迹Ⅰ-新羅篇』, 1988.(日本語)
 宫川桢一, 『陶质土器と須恵器』, 『日本の 美術 4』, 2000.(日本語)

5.論文

강인구, 「百濟의 火葬墓」, 『考古美術』 115, 한국미술사학회, 1972.
 구미래, 「불교전래에 따른 火葬의 수용양상과 변화 요인」,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
 민속학회편, 집문당, 2002.
 金福順, 「文武王의 佛教政策」 『新羅文化』 第 16輯,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1999.
 金元龍, 「統一新羅토기초고」, 『考古美術』 162・163, 한국미술사학회, 1984.
 金昌鎬, 「고고 자료로 본 신라 고대 국가의 형성시기」, 『新羅文化』 21輯, 2003.
 -----, 「고고학 자료로 본 신라사의 시대구분」, 『仁荷史學』 10, 2003.
 -----, 「新羅 密敎사원 四天王寺의 역사적 위치」, 『밀교학보』 第 3輯, 威德大學校 密敎文化研
 究院, 2001.
 김호상・김재현, 「新羅王京 所在 火葬墓의 構造와 出土人骨分析」,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國邑
 에서 都城으로』 26輯, 2005.
 朴方龍, 「新羅十二支銘骨壺에 관한 小攷」, 『新羅文化』 7집, 1990.
 山本孝文, 「百濟火葬에 대한 考察」, 『한국고고학보』 50輯, 2003.
 蘇在龜, 「新羅下代와 高麗時代 僧塔 研究」,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윤세영, 「新羅 火葬王考」, 『한국사학보』 6호, 고려사학회・도서출판 열린책들, 1999.
 李東憲, 「雲文이 施文된 統一新羅 印花紋土器 檢討」, 『佛敎考古學』 第 5號,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5.
 이근직, 「新羅 王陵의 起源과 變遷」,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은창・강유신, 「경주 용강동 고분의 연구-용강동고분의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古文化』 제
 40・41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2.
 이한상, 「동해안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양상」, 『영남고고학』 32집, 2003.
 이희준, 「경주 석장동 동국대 구내 藏骨器」, 『영남고고학보』 11輯, 영남고고학회, 1992.
 -----, 「부여 정림사지 蓮池 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토기」, 『한국고고학보』 31, 한국고고학
 연구회, 1994.

- 이현숙, 「신라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韓國古代史研究』 Vol.31, 2003.
- 鄭吉子, 「新羅藏骨容器研究」, 『한국고고학보』 8, 한국고고학연구회, 1980.
- , 「高麗時代 火葬에 대한 考察」, 『釜山史學』 Vol.7 No.1, 1983.
- , 「韓國佛僧의 傳統葬法研究」, 『崇實史學』 Vol.4, 1986.
- , 「中國高僧傳을 통해 본 佛僧의 葬法」, 『嶺南考古學』 5輯, 영남고고학회, 1988.
- , 「新羅時代의 火葬骨藏用器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 「高麗 貴族의 組立式 石棺뚜껑」, 『線刻飛天畫』 綠友研究論集 No.37, 2000.
- 정형철, 「고려시대 火葬에 대한 재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병현, 「新羅後期樣式土器의 成立 試論」, 『삼불김원용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I -고고학편』, 일지사, 1987.
- 최명식,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소고」, 『文化財』 제24호, 1991.
- 崔恩娥, 「慶州地域 出土 鎭壇具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홍보식,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 「統一新羅의 장·묘제」, 『統一新羅 고고학-제28회 한국고고학대회』 2004.
- , 「統一新羅 연결고리유개호의 발생과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50輯, 2005.
- 重見泰, 「新羅 印花紋土器 研究의 文樣論 再考」, 『제 6회 합동고고학대회 한·일 교류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2004.
- 小田富士雄, 「日·韓 火葬墓의 出現 -扶餘와 九州」, 『백제연구』 제16집, 1985.(日本語)

<국외논문-日本語>

- 宮川楨一, 「新羅陶質土器 研究の 一視點-7世紀を中心として」, 『古代文化』 卷40卷 第6號, 1988.
- , 「新羅連結把手付骨壺の變遷」, 『古文化談叢』 第20集, 九州古文化研究會, 1989.
- , 「新羅印花紋土器變遷の 劃期」, 『古文化談叢』 第30集, 1993.
- , 「新羅印花紋土器の 文樣分析-慶州雁鳴池出土土器の 檢討」, 『朝鮮古代研究』 第2號, 2000.
- 齊藤忠, 「新羅火葬骨壺考」, 『考古學論叢』, 1936.
- , 『東アジア葬・墓制の研究』, 1987.
- , 『墳墓の 考古學』, 1996.
- 吉澤悟, 「火葬墓の出現と廣がり」, 『千葉縣の歴史 資料編考古4』, 2003.
- 森本徹, 「韓國における初期火葬墓の研究」, 『韓國 考古와 歷史Ⅱ』, 경원문화사, 2000.

A Study on Cremation Grave from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around Gyeongju Area

Seok, Byoung – Cheul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Around the time when Silla dynasty unified the Three Kingdoms, there were many changes brought about in policy, economy, culture and more. In particular, grave form turned from stone-topped wooden coffin type to caved type in addition to cremation grave as found on sites. It is estimated that the cremation of Silla dynasty was a burial method occurring in concurrence with nationwide adoption of Buddhism, and was settled in the society of our ancestors under the prevalent influence of Buddhism. That is, the cremation appeared in the late era of Three Kingdoms with Buddhism accepted for the first time, and became propagated gradually nationwide in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In terms of historical scope, this study on cremation grave was confined to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i.e. the 7th to 9th century including the late 6th century around Gyeongju area.

In view of the locations and distributions of cremation grave from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around Gyeongju area, as grave form turns from stone-topped wooden coffin type to caved stone chamber type, its location turns from plain to mountainous region, and a similar tendency can be found in cremation grave as well.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cremation graves also shows aspects almost

equivalent to that of caved stone chamber type and the location of royal mausoleums.

This study addressed the structure of cremation grave and corresponding urn broadly into 4 categories. First, the cremation grave can be divided into single type(I) and double type(II). In further detail, the former was divided again into single type(I) and earthenware type(IA), while the latter was classified into stone coffin with earthenware(wooden box) installed(IIA), double type with earthenware installed in earthenware(IIIB), and double type with earthenware installed in stone box(IIIC).

Out of these categories, the structure of IA and IIA are found to be earliest in historical period, and all the 4 types are found in relics from the A.D. 8th century. Some of cremation graves based on IA, IIIB and IIIC structure are found in the relics from the early A.D. 9th century, but cremation graves built after the period have been not yet found to date.

In terms of associations between cremation grave and Buddhism, cremation graves were erected in certain time after Silla dynasty authorized the Buddhism as national religion, which indicates a lapse required to adopt Buddhist cremation turning from conservative burial system. And the cremation graves begin to be built on full scale in the late 6th century or at least the early A.D. 7th century. According to studies in Korean Buddhist pagodas, it i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stone coffin or chamber installed in grave in the era of Silla dynasty and early era of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adoption of cremation grave was found to be affected more by King Gyojong, not King Seonjong. In other words, it is concluded that the cremation graves originated from the A.D. 6th and A.D. 7th century were influenced much by King Gyojong.

Also, apart from the influence of Buddhism, it is estimated that King Munmu adopted cremation in regard to his contemporary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s shown in the era of King Munmu delineated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This implies that the cremation grave was adopted in Silla dynasty with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reflected for the sake of peninsular unification.

According to ancient literatures about the buried in cremation grave, it was found that the buried include 8 kings and 1 Buddhist monk(Jajang). And epigraph materials indicated 5 persons, i.e. King Munmu, parents of Kim Ji-seong (6th Dupum), Shinhaeng Seonsa and Jinghyo Daesa. Based on locations and distribution of cremation grave, it is estimated that they are likely elites higher than Jin-gol as the core of hierarchical power. In regard to structure of urn, the case of ancient Chinese porcelains, urn with green oil lubricated, and ceramic 12 horary icons around urn suggests that the buried belonged to considerable high classes.

As discussed above, this study addressed cremation graves in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It is concluded that the cremation graves originated from the late A.D. 6th or the early A.D. 7th century and became popularized and erected in a multitude around the A.D. 8th century. Some relics relevant to cremation grave are found to come from the early A.D. 9th century, but there has been not yet any finding of grave built after then. This trend is in same context with any type of grave disappearing in the early 9th century with regard to grave system in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Although there are some new findings concerned, there are still relatively few cases of cremation grave. Hence, it will be necessary to collect more related data in parallel with further studies in cremation grave in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 Furthermore, although this study set up its target on Gyeongju area, it is advisable to make in-depth studies into cremation graves on other areas and possible associations between Buddhism and cremation in the era of Unified Silla dynasty.